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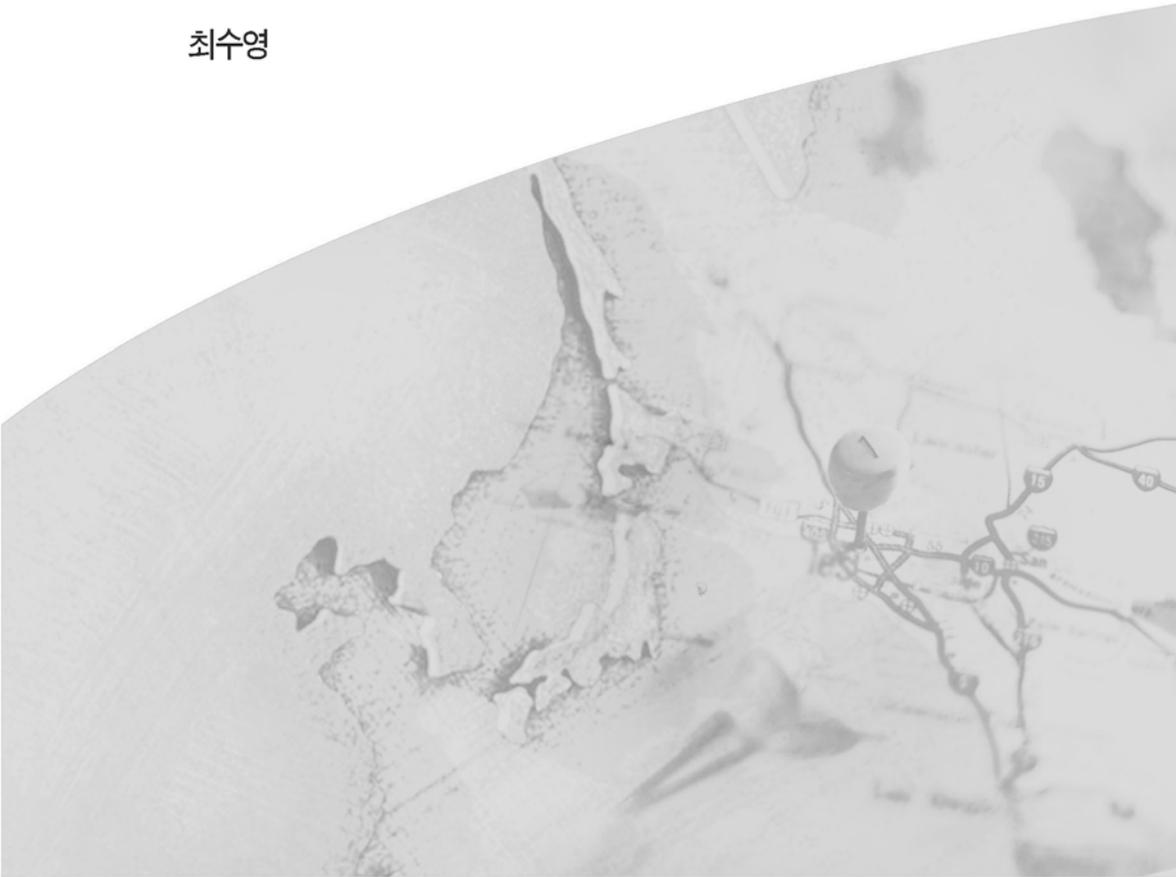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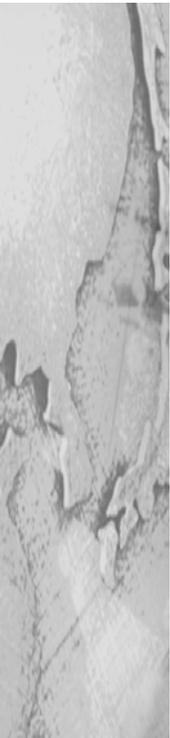
최수영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85-1141)

ISBN 978-89-8479-580-8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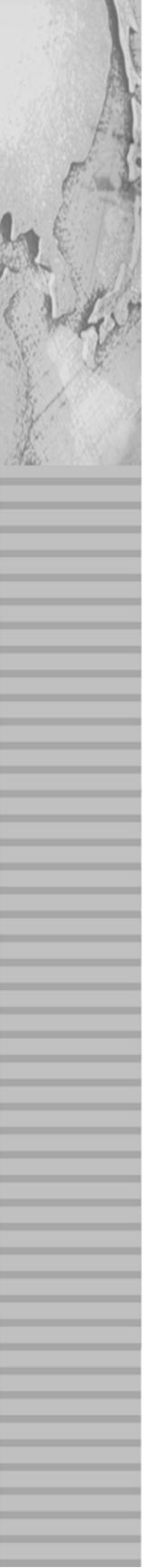
가 격 ₩7,5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연구 목적과 내용 .....	1
II.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	5
1. 북·중 경제관계 .....	7
2. 남북경협 .....	13
III. 북·중무역과 남북교역 .....	21
1. 무역 추이와 규모 .....	23
2.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특수성 .....	30
3. 수출입품목구조의 변화 .....	43
4. 대북무역의 특징 비교 .....	65
IV. 중국의 대북투자과 남북한 경제협력사업 비교 .....	69
1. 투자와 경협사업의 추이 .....	71
2. 분야별 대북투자 및 경협사업 현황 .....	76
3. 중국의 대북투자과 남북 경협사업 비교 .....	105

<b>V. 중국과 한국의 대북지원</b> .....	109
1. 중국의 대북지원 .....	111
2. 한국의 대북지원 .....	116
3. 대북지원 비교 .....	120
<b>VI.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b> .....	123
1. 경제난 완화 및 경제성장 .....	125
2. 고용효과 .....	129
3. 자원 및 경제개발 .....	131
4. 시장 지배력 .....	135
5. 경화(硬貨) 수입 .....	138
<b>참고문헌</b> .....	143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	147

# 표 목 차

<표 III-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	23
<표 III-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남북교역 제외) .....	26
<표 III-3> 남북교역 참여업체 .....	29
<표 III-4> 북한의 중국 동북3성 수출입 비중 변화 .....	31
<표 III-5> 북한의 중국 동북3성 주요 수출입품목 비중 .....	32
<표 III-6>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 가격의 변화 .....	34
<표 III-7>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규모와 비중 .....	36
<표 III-8> 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비중 (반출입 기준) .....	37
<표 III-9>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규모 및 추이 .....	39
<표 III-10> 비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비중 (반출 기준) .....	42
<표 III-11> 북한의 대중 수출상품구조 .....	44
<표 III-12>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	47
<표 III-13> 북한의 대남 수출상품구조 .....	48
<표 III-14> 북한의 대남 수출 상위 10개 품목 .....	50
<표 III-15> 북한의 대중 수입상품구조 .....	52
<표 III-16>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 .....	54
<표 III-17> 북한의 대남 수입상품구조 .....	55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표 III-18> 북한의 대남 수입 상위 10개 품목 .....	58
<표 III-19> 북·중무역의 주요 수출입품목 .....	60
<표 III-20> 남북교역의 주요 반출입품목 .....	64
<표 IV-1> 중국의 대북 투자추이 .....	74
<표 IV-2>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	75
<표 IV-3> 진행 중인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 .....	76
<표 IV-4>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투자) 현황 .....	79
<표 IV-5> 한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 현황 .....	81
<표 IV-6> 중국기업의 제조업 분야 투자 현황 .....	86
<표 IV-7>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현황 .....	88
<표 IV-8>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현황 .....	89
<표 IV-9> 개성공단의 근로자 현황 .....	90
<표 IV-10> 개성공단의 생산액과 수출액 .....	91
<표 IV-11> 개성공단의 업종별 생산 현황 (2005~2010.6 누계) .....	91
<표 IV-12> 개성공단의 업종별 수출 현황 (2005~2010.6 누계) .....	92

# 표 목 차

<표 IV-13> 개성공단의 반출입 규모 .....	93
<표 IV-14> 중국의 대북 운송·서비스 분야 진출 현황 .....	96
<표 IV-15> 중국의 대북 SOC개발 분야 투자 현황 .....	103
<표 IV-16>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	104
<표 V-1>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	111
<표 V-2>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	112
<표 V-3> 대북지원 현황 .....	116
<표 V-4> 대북 식량차관 제공 현황 .....	119
<표 V-5> 대북 비료지원 현황 .....	119
<표 VI-1>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 .....	126
<표 VI-2> 북한의 대중·대남 무역의존도 비교 .....	128
<표 VI-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 .....	131
<표 VI-4> 북한의 대중·대남 수입의존도 비교 .....	135
<표 VI-5>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와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 .....	140

# I. 연구 목적과 내용

과 · 중 경제관계와 남북 정협이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근 북·중관계는 급속히 긴밀화되고 있는 반면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북·중 경제관계는 무역의 급증,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및 나진항 투자 진출, 단동-신의주 접경지역 상호 개발 움직임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중 경제협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등 경협 확대의 제반여건이 악화되었다.

한편 북·중 경제관계의 강화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향후 남북경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은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남북경협의 대북 영향력은 크게 저하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북·중 경제관계 실태 및 남북경협의 현황을 면밀히 비교·평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 평가를 기초로 둘째, 북·중 경제관계 및 남북경협이 북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중 경제교류 및 중국의 대북 정책 관련 중국 측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중국 전문가와 접촉해 자료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동북3성 거주 조선족 학자와 연구자를 활용하여 북·중 경제교류 현황 및 동향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중국의 대북 개발 동향 및 투자 진출에 대한 중국 측 문헌을 조사하고, 북한의 대중 정책 및 경제교류에 대한 북한 문헌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면담,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현황의 비교·분석을 통해 이들이 북

I
II
III
IV
V
VI

한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상대적 지위를 파악하도록 한다. 이런 결과는 정부의 대북 경제정책, 특히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에 맞설 수 있는 남북경협의 질적인 도약을 위한 대북 경제 관련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2장에서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제3장에서 제5장까지는 무역, 투자(경제협력사업), 지원 등 3분야에 대한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을 비교하고 있다. 제3장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에서는 무역추이와 규모,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특수성, 수출입구조의 변화 및 특징을 비교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북투자와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이, 분야별 투자 및 경제협력사업 현황, 그리고 특징을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대북지원 현황을 살펴본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대북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비교·분석은 5가지 범주, 즉, 경제난 완화 및 경제성장, 고용효과, 자원 및 경제개발, 시장 지배력, 경화(硬貨) 수입에서 이루어진다.

## II.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 1. 북·중 경제관계

## 가. 1990년대 침체기

북·중관계는 1960년대 중후반 중·소 분쟁 및 문화대혁명 시기에 일시적으로 소원해진 적이 있었지만 1990년대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혈맹’의 우의와 ‘순치’관계를 유지해 왔다. 북한과 중국은 1949년 수교하면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항일투쟁의 경험, 지리적 근접성 등을 바탕으로 혈맹관계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양국관계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사상·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보다 강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 하에서 북·중 경제관계는 양국 간 정치·군사적 관계에 종속되는 한편,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양국 간 불평등한 경제관계는 일반교역에도 적용되어 중국은 북한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를 부여해 왔다. 그렇지만 북·중 교역의 특혜적 성격은 냉전체제의 종식과 더불어 1992년 이후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1990년대 초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중국은 북한의 제1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이런 현상은 북한과 구소련과의 경제·무역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중국이 그 자리를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 결과 북·중교역 규모는 일시적이지만 증가해 1990년 4.8억 달러에서 1993년에는 9억 달러 수준이 되었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또한 급격히 확대되었다.

북·중 경제관계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한·중수교라 할 수 있다.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고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북·중 경제관계에도 변화가 일어

I
II
III
IV
V
VI

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면서 북·중 관계는 과거의 혈맹과 순치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냉각기에 접어들었다.<sup>1</sup>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직전 북한은 “제국주의에 굴복한 일부 혁명의 변절자들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최근 일부 국가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졌다”고 중국을 비판한 바 있다.<sup>2</sup>

북·중 간의 마찰은 1993년부터 북·중 고위급 상호방문의 중단으로 귀결되면서 북·중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북·중관계에 경제논리를 우선하면서 북한에 적용해 온 사회주의 우호가격제 및 구상무역제를 폐지하고 북한에 대해 경화결제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sup>3</sup> 이에 따라 북·중 간 거래관행이었던 물물교역, 구상무역 및 외상거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사회주의권 붕괴의 여파로 극심한 경제난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지원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북·중 정치·경제관계의 악화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성장추세에 있던 북·중무역에도 타격을 주었다.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양국 관계의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한 바 있고, 1996년 5월 북한의 홍성남 총리가 북경을 방문하였을 때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고 대북교역에서도 우호

1. 한·중수교는 그 동안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북·중 수뇌급 회담의 중단 등 양국관계 악화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북한외교에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2. 북한연구소, 『북한총담(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p. 290.

3. 북·중무역은 1950년에 체결된 ‘북·중 제1차 무역협정’, 그리고 1961년 체결된 ‘북·중 우호합작조약’에 따라 바터무역과 우호가격을 근간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1992년 1월 바터무역을 경화결제로 전환하는 새로운 북·중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가격 적용을 재개한다고 발표하였다.<sup>4</sup> 이에 따라 북·중관계는 부분적으로 호전되고 1996년~1997년에는 양국 교역도 일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북·중무역은 1997년 말 동아시아 금융위기로 다시 감소하였다. 북·중무역은 1993년 9억 달러를 정점으로 하락세로 반전하였고, 이런 감소추세는 1990년대 말까지 지속되었다. 북·중무역은 1999년에는 3.7억 달러를 기록해 1990년 수준 이하로 후퇴하였다.

북·중 경제관계가 복원되고 북·중무역이 다시 활기를 띠게 된 계기는 1999년에 재개된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이었다. 이 해 6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5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 사절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코크스 40만 톤을 북한에게 무상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 나. 2000년대 확대기

2000년에 들어와서 북·중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져 양국은 과거의 전통적인 우호협력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다. 이런 북·중 밀착은 무엇보다도 최고 지도자를 포함한 양국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일어났다. 2000년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였고, 5월에는 북경을 방문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방중 시 북·중 우호관계의 공고한 발전은 양국 인민의 희망이고 근본적인 이익이라고 하였다.<sup>5</sup> 6월에는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중국 북경을

<sup>4</sup> 이 협정에는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곡물 50만 톤, 석유 130만 톤, 석탄 2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국제가격의 1/3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방문하였고, 10월에는 중국 부주석 겸 국방부장 츠하오텐이 평양을 방문하였다.

북·중관계는 2001년 1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상호 필요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장쩌민(江澤民) 중국 주석이 2001년 9월 평양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양국 정상회담에서 장쩌민 주석은 ‘중북우의(中北友誼)’를 강조했고,<sup>6</sup> 김정일 위원장은 장쩌민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활동 목표로 주장한 ‘3개 대표론(선진생산, 선진문화, 광대한 인민의 이익)’을 지지했다. 이 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게 식량 20만 톤,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2000년대 초 북·중 양국의 정치교류 및 경제관계 확대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일시적이지만 긴장국면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중국은 2002년 북한이 신의주특별행정구 초대장관으로 임명한 중국 출신 기업가 양빈을 탈세혐의로 체포하면서 중국과 사전 조율이 되지 않은 북한의 특구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또한 2003년에는 산업스파이 혐의로 북한인 6명을 체포하고 50명을 추방한 바 있다.<sup>7</sup>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하에서 북·중 경제관계는 한층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북한체제의 존속과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

5 『인민일보』, 2000년 6월 2일.

6 장쩌민 주석은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향하며 선린우호 속에서 협력을 강화한다(繼承傳統 面向未來 睦隣友好 加強合作)”는 북·중관계의 “16자 방침”을 제시하였다.

7 이희옥, “북·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p. 198.

후견인 역할을 확대해 왔다. 2004년 4월 2일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경제 및 무역협력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 자리에서 “중국정부는 중국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협력을 행할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하였다. 2005년 3월에 양국은 ‘투자 장려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및 ‘환경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경제협력공동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북·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양국은 ‘북·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전략적 방침’임을 합의했고,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과 북한기업의 투자협력을 고무하고 지원하겠다”고 언급하였다.<sup>8</sup> 이것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원조와 교역 중심에서 투자로 확대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6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이 방중해 중국 최고 권력층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을 접견함으로써 양국은 당 대 당의 전통적 협력관계를 복원·유지하고 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런 양국 관계의 밀착은 경제관계에 반영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북·중무역은 1999년을 바닥으로 상승추세로 바뀌어 2003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서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이 추진된 2006년에도 북·중무역은 증가하여 17억 달러에 육박하였다. 특히 2005년부터는 중국의 대북투자가 급격히 신장하고 있어 중국의 대북 경제적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중 경제관계의 밀월과는 달리 핵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sup>8</sup>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 원조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교도통신』, 2005년 10월 29일; 중국 우의(吳儀) 국무원 부총리는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 직전인 2005년 10월 10일 방북하여 북한과 3대 중공업분야(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에 개발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홍콩 『文匯報』, 2006년 10월 30일.

I
II
III
IV
V
VI

갈등은 여러 차례 표면화되었다. 미국의 대북 강경조치에 따라 중국이 2005년 9월 BDA은행의 북한 관련 계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하자 북한은 노골적으로 중국에 불만을 제기하였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강행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비판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1718호에 찬성하자 양국의 갈등은 깊어갔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안 1874호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북·중 간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2009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다소 소원했던 북·중관계는 하반기부터 급속히 회복되었고, 양국은 경제협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북·중 수교 60주년을 맞아 2009년 3월에 있는 북한 김영일 총리의 중국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10월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북한을 방문하였다.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양국은 다양한 경제협력에 합의함으로써 양국의 경제관계는 한층 강화되었다.<sup>9</sup> 이를 계기로 그동안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북·중 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 또는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중 양국은 2010년에도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 및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통해 양국 현안 및 경제협력 문제를 논의해 왔다. 2월에는 왕자루이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일을 면담하였고,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베이징 방문 시 6자회담 복귀, 평화협정 문제와 더불어 양국 경제협력 문제 논의하였다. 이후 김영일 북한 노동당 국제부장

---

<sup>9</sup> 북·중 양국은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경제기술원조협정’, ‘교육기관 간 교류협약서’, ‘소프트웨어 산업분야 교류협조 양해문’, ‘중국 관광단체의 조선관광 실현에 관한 양해문’ 등에 서명, 신압록강대교 신설, 훈춘-나진항 연결도로 건설, 나진항 부두 개발 등의 인프라 개발에 합의, 신압록강대교 인근 위화도(12.2km<sup>2</sup>)와 황금평(11.45km<sup>2</sup>)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50년 임대형식으로 개발권 부여 및 중국은 북한에 2,000만 달러 상당의 식량·에너지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방문, 양국 접경지역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북·중 양국의 밀월관계는 김정일의 두 차례 중국 방문(2010.5, 2010.8)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 김정일은 중국 방문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협력을 보장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8월 중국 창춘(長春)에서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권력승계(후계체제)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획득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은 긴밀해진 중국과의 관계를 활용해 우선 2009년 11월 30일 단행된 화폐개혁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만회하고자 중국으로부터 식량조달 및 원조 획득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시에 중국자본 중심의 외국자본 유치 및 대외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일단 중국자본의 투자 유치를 통해서 라선시와 신의주 일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한편 중국은 북한 라진항 사용권을 획득해 동북3성 물류를 태평양으로 운송할 수 있는 동해 출루권을 확보하였고, 창지투(長吉圖)개발선도구 계획과 연계해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2. 남북경협

### 가. 1989년~1997년 모색기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선언’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경협은 교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남북경협의 초기 단계에서는 남북관계의 정치적인 상황, 북한 핵 문제의 대두, 그리고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한계 등으로 인해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경

I

II

III

IV

V

VI

제협력사업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정부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에 착수하였다.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후 남북교역 품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을 만들어 교역품목의 확대와 교역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남과 북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고 투장보장·이중과세 방지·분쟁조정절차·청산결제에 대해 남북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

1994년 11월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를 발표함으로써 위탁가공 교역 활성화를 위한 기술자의 방북이 허용되었다. 1995년에는 북한산 물품의 원산지 표기방법을 개선하는 등 통관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이런 남북경협의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는 1993년 3월 북한의 NPT 탈퇴 선언으로 한때 급속히 냉각되기도 하였다.

남북교역에 대한 제도적 정비와 함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1994년의 『남북경제협력활성화조치』에는 경제협력 시범사업의 협의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기업인의 방북 허용, 생필품·제조업 분야에서의 소규모 시범적 경제협력사업 장려, 민간차원의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허용 등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사업이 남북한 상호이익을 도모하면서 남북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실제로 성사된 것은 1996년 가동을 시작한 대우의 남포공장뿐이고 다른 사업들은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남북교역은 첫 해인 1989년 불과 1,870만 달러였으나 꾸준히 증가해 1997년에는 3억 83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 남북교역이 16.5배나 되는 큰 폭의 증가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빠른 증가

에 따른 것이다. 일반교역은 1989년 1,870만 달러에서 1997년 1억 7,123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 2,570만 달러에서 1997년에는 7,910만 달러로 늘어났다. 1992년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199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남북한 거래에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아닌 비상업적 거래가 1995년부터 등장하였다. 경수로 건설사업에 따른 물자의 대북 반출과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대북 쌀 지원이 그것이다. 비상업적 거래에는 북미 제네바 합의에 따라 1995년에 KEDO의 대북 중유 지원(1,080만 달러 상당)이 있었고, 1997년에는 경수로 건설용 물자 및 중유 제공분으로 4,960만 달러가 포함되었다. 대북지원은 북한이 국제기구에 지원을 요청한 1995년 처음으로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후 계속되고 있다.

#### 나. 1998년~2007년 추진·확대기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에 입각한 남북경협을 추진하였다. 남북관계의 신뢰조성과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교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1998년 4월 『남북경협활성화조치』가 발표하였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였다.<sup>10</sup> 이 해 11월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됨으로서 남북경협은 교역일변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sup>10</sup> 활성화조치에는 대기업의 경협 추진이 가능하도록 대기업 총수 및 경제단체의 방북 허용, 교역 활성화를 위해 포괄승인품목 확대, 위탁가공 촉진을 위해 생산설비의 반출제한 폐지, 500~1,000만 달러 내외의 투자규모 상한선 폐지 등이 포함되었다.

I
II
III
IV
V
VI

남과 북은 2000년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문에 담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에 따라 남북은 경제협력 실무회담을 개최하면서 경협 관련 모든 제도적 절차의 원칙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 해 12월 남과 북은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4개 경협합의서(남북한 간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관한 이종과 세방지 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남북경협관련 문제들을 논의하였다.<sup>11)</sup>

남북한 간에 경협 관련 세부적인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남북경협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남북경협은 활성화되었다. 경제협력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이 추진되었고, 대북 쌀 차관 지원 및 비료지원과 같은 정부차원의 대규모 인도적 지원도 정례화되었다. ‘국민의 정부’ 시기 남북교역은 크게 확대되어 1998년 2억 2,194만 달러에서 2002년에는 6억 4,173만 달러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초반 남북관계의 화해 분위기 조성과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에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교역과 경협의 제도화 수준은 한 단계 높아졌다. 2005년 7월 ‘남북경제협력협약사무소 개설 및 운영합의서’가 채택됨으로서 개성에 ‘남북경협협약사무소’가 개설되고 남북 직교역의 기반이 확립되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과 합의한 9개의 경협합의서는 2005년 8월 국회 동의 후 북한과의 문서교환을 통해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

---

<sup>11)</sup>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2007년 4월까지 13차례 개최되었다. 2007년 11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차관급 회의에서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되었다.

다.<sup>12</sup> 또한 2005년 12월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남북 간 거래는 ‘민족내부거래’임을 국내법으로 재확인하였다. 특히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선언에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건설 구상을 비롯해 남북경협을 확대·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었다.<sup>13</sup>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교역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2차 북핵 위기로 2004년 남북교역액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2005년에는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7억 9,094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교역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개성공단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물자와 원자재의 반출과 생산품의 반입이 급속히 늘어났고, 민간차원의 대북지원도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 다. 2008년 이후 정체기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경협은 진통을 겪고 있다. 북한은 대북정책의 핵심인 『비핵·개방·3000』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해 왔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남북경협을 실용주의에 입각해 신중

<sup>12</sup> 9개 경협합의서는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 『남북상사 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합의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에 관한 부속합의서』 등이다.

<sup>13</sup> 여기에는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철도·도로의 개·보수, 농업·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I
II
III
IV
V
VI

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경협도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남북경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2008년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함으로써 이후 금강산관광은 중단된 채 아직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12월 1일부터 남북한 육로통행을 차단하는 ‘12.1 조치’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2009년에 들어와서는 북한의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에 돌입하게 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가 발표된 직후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개성공단사업을 제외한 남북경협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였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남북교역의 증가추세도 둔화되고 2009년에는 교역규모가 크게 감소하였다. 2009년 남북교역 규모는 16.8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7.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천안함 사태와 이에 따른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2010년 상반기 남북교역 실적은 역대 최대를 보이고 있다. 오래 상반기 남북교역 실적은 9억 9,400만 달러로 지난 해 상반기 6억 5,300만 달러보다 52.2% 증가한 것이다. 이 실적은 역대 최고를 기록한 2008년 상반기의 8.8억 달러 대비 1.1억 달러 이상을 웃도는 실적이다.

남북교역은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남북교역 전면 중단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역감소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7월과 8월의 교역액도 각각 1억 6,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개성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리고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일반교역과 위탁  
가공교역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도 기인  
하였다.

---

I

II

III

---

IV

V

---

VI

---



### Ⅲ. 북·중무역과 남북교역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이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 1. 무역 추이와 규모

## 가. 북·중무역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경제권이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렇지만 1990년대 북한의 대내외 경제상황은 최악의 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대내적으로는 전반적인 산업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심지어 1990년대 중반에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경제위기 상황에 봉착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사회주의권을 대체할 교역상대국 확보의 실패, 중국의 대북 우호가격제 폐지 및 경화결제 요구 등으로 전반적인 대외무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런 북한의 대내외적인 경제환경은 북·중무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북·중무역 규모는 1990년 4.8억 달러에서 1992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이후 199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북·중무역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 37.1%, 그리고 1999년에도 10.3% 감소하여 1999년 북·중무역 규모는 1974년 이후 최저수준인 3.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표 III-1 북한의 대중 무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8	57.3	-33.5	355.7	-52.9	413.0	-37.1	-298.4
1999	41.7	-27.2	328.7	-7.6	370.4	-10.3	-287.0

구분	수출		수입		무역총액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0	37.2	-10.8	450.8	37.1	488.0	31.8	-413.6
2001	166.8	348.1	570.7	27.1	737.4	51.1	-403.9
2002	270.7	62.3	467.3	-18.1	738.0	0.1	-196.6
2003	395.3	46.1	627.6	34.3	1,022.9	38.6	-232.2
2004	585.7	48.2	799.5	27.4	1,385.2	35.4	-213.8
2005	499.2	-14.8	1,081.2	35.2	1,580.3	14.1	-582.0
2006	467.7	-6.3	1,231.9	13.9	1,699.6	7.5	-764.2
2007	581.5	24.3	1,392.5	13.0	1,974.0	16.1	-811.0
2008	754.0	29.7	2,033.2	46.0	2,787.3	41.2	-1,278.2
2009	793.0	5.2	1,887.7	-7.2	2,680.7	-3.8	-1,094.7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2000년대 들어와서 북·중무역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양국 무역규모는 4.9억 달러로 1990년 수준을 회복하였고, 2001년에는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1% 급증하였다. 2000년대 초반 북·중무역의 급증은 2000년과 2001년 북·중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양국 간 관계개선 노력이 무역에도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런 증가추세는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져 북·중무역규모는 2003년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5년에는 15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중무역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2008년까지 지속되었다. 2008년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무역규모가 41.2% 증가한 27.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 해 북한의 대중 수입은 20.3억 달러인 반면 수출은 7.5억 달러에 불과해 사상 최대 규모인 12.8억 달러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2000년대 중후반 북·중무역의 급증은 북핵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고 대북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이 식량, 에너지 등 전략물자를 비롯한 수입 물자를 대부분 중국에서 조달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 북·중무역은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의 대중 수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7.2% 감소함에 따라 북·중무역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3.8% 감소하였다. 북한이 대중 무역에서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시현하기 때문에 북한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더욱 큰 상황에서는 북·중무역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2009년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 교역량 급감을 고려한다면 북·중무역은 북한체제의 폐쇄성 및 북·중 교역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금융위기의 영향은 상대적 적었다.<sup>14</sup>

북·중무역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와서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000년~2001년 4억 달러 수준에서 2002년~2004년에는 2억 달러 내외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해 2008년과 2009년에는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하였다.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의 증감은 북한의 대외무역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북한의 전체 무역적자규모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0년대 초반(2000년 49.2%)에 비해 2002년~2004년(2004년 26.2%)에는 대폭 축소되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5년에는 57.9%, 그리고 2008년과 2009년에는 각각 82.2%, 84.9%로 확대되었다.

<sup>14</sup> 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2010), p. 20.

I
II
III
IV
V
VI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중무역이 감소추세에 있었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 북·중 교역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1년 30%, 2003년 40%, 2005년 50%, 2007년 60%, 2008년 70%를 넘어섰다. 2009년에는 북·중무역이 소폭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오히려 78.5%로 높아져 사상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표 III-2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남북교역 제외)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중(%)	28.6	25.0	24.7	32.5	32.7	42.8	48.5	52.6	56.7	67.1	73.0	78.5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이러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는 일차적으로 양국 간 교역여건이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낮은 물류비로 들여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인 우방인 중국으로부터 원유 등과 같은 전략물자 및 원자재 등 주요 수입물품을 조달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에는 한반도, 특히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2002년 북한이 핵개발을 시인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통상제재가 강화되고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원조는 감소하였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으로 인한 북·일 관계 악화로 북·일 무역도 감소하였다. 특히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및 1차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부터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본격화 되었고 일본과의 교역은 단절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대외 환경 하에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의 확대는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최근 남북 관계의 경색으로 인한 남북교역의 위축과 경제협력사업의 부진으로 인해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sup>15</sup>

## 나. 남북교역

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남북한 간 교역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과 1990년의 남북교역 규모는 각각 1,870만 달러, 1,350만 달러로 겨우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여년이 지난 2008년과 2009년의 남북교역 규모는 각각 18억 2,040만 달러, 16억 7,910만 달러로 교역 초기에 비해 100배 정도 신장하였다.

200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남북교역은 가파른 증가추세를 보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남북교역 규모는 약 7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규모로 약 2.5배 이상 성장하였다. 이 기간 남북교역의 급증은 국내 내수회복 등에 따른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증가, 개성공단 본격 건설 및 금강산 관광시설 확충에 따른 물자의 반출입 확대, 정부 및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증가 등에 기인하였다.

남북교역의 증가 추세는 2008년에 들어와서 급격히 둔화되고, 2009년에는 남북교역은 크게 감소하였다. 남북교역은 2008년(18.2억 달러, 전년 대비 1.2% 증가)에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16.8억

<sup>15</sup>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p. 11; 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1.

달러를 기록, 전년 대비 7.7% 감소(반입은 0.2% 증가, 반출은 16.1% 감소)하였다. 2008년에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반출이 감소된 반면, 2009년에는 반출 감소 이외에도 아연괴, 무연탄 등 광산물 반입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일반교역의 감소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비록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남북교역이 다소 조정을 받고 있으나 지난 20여 년간 남북교역의 확대는 북한의 대외무역 구조에도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남북교역의 초기만 하더라도 남북한 간 경제교류는 교역 위주로 추진되어 왔으나 1998년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고, 2003년 6월 개성공단이 착공되면서 남북교역은 교역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후반기에는 개성공단사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협력사업이 남북교역의 중심축이 되었다.

남북교역이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포함)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비중이 높아져 왔다. 1995년~2000년 기간 남북교역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15% 내외를 차지하였다. 남북교역의 비중은 2001년 20%, 2006년에는 30%를 넘어섰다. 이어 2007년에는 37.9%로 북한무역의 남북교역 의존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는 남북교역의 비중이 다소 위축되었지만 각각 32.3%, 33.0%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남한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남북교역에서는 반입(북한의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과거 북한의 수출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에 치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이 시작되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북한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남한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의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남한의 비중은 20%대를 넘어섰

고, 2000년대 초반에는 27%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최근 2007년과 2008년의 경우에는 45%를 상회할 정도로 북한 수출시장으로서 남한의 역할이 매우 높아졌다. 반면 반출(북한의 수입)은 비록 그 비중이 점차 높아져 왔지만 반입(북한의 수출)에 비한다면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수입보다는 남한으로의 수출에 더욱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표 III-3 남북교역 참여업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6
일반교역	379	339	277	399	389	158
위탁가공	136	123	89	164	133	108
개성공단	31	36	42	193	172	141
경제협력	13	18	18	34	33	n.a.
전체	523	477	425	760	668	404

주: 업체 수는 사업형태별로 일부 중복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호; 한재완, “2010년 상반기 남북교역·북·중 교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Vol. 9, No. 49 (한국무역협회, 2010.9), p. 11.

전반적으로 남북교역의 확대는 남북교역 참여업체 수의 증가를 수반하면서 이루어졌다. 교역참여 업체들은 대부분 평양 및 남포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교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남북교역이 위축되면서 남북교역 참여업체 수도 668개로 전년 대비 12.1% 감소하였다. 일반교역을 비롯해 위탁가공교역, 개성공단 및 기타 경제협력사업 등 교역 형태의 전 부문에서 교역업체 수가 감소하였다.

I  
II  
III  
IV  
V  
VI

## 2. 북·중무역과 남북교역의 특수성

### 가. 중국 동북3성과의 무역

북한의 대중 무역은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다. 북·중무역에서 동북3성의 비중이 심화된다고 볼 수 없으나 동북3성은 70%에 육박하는 높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북한과 접하고 있는 동북3성은 북·중무역의 여러 유형 중에서 변경무역과 보세무역의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중무역에서 동북3성의 위상은 2002년 78.7%를 정점으로 2006년까지 하락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북3성의 비중은 2004년까지 70%를 상회하였으나 2005년~2007년 기간에는 60%대 후반으로 다소 낮아졌다. 2008년에 75.6%를 기록하면서 높아졌으나 2009년, 2010년에는 다시 70%대 아래로 떨어졌다.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비중은 수입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동북3성 비중의 증감은 북한의 대랴오닝성 수출과 직접 연계되어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랴오닝성의 비중은 2001년부터 급증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동북3성 전체에 대한 수출비중도 같은 패턴으로 급격히 변한 것이다. 2001년부터 북한의 어패류와 의류·부속품의 대랴오닝성 수출이 급증하면서 동북3성의 위상이 높아졌다. 그렇지만 2002년 『7.1조치』 이후 중국 연해지역 성들이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대북경제제재 여파 등으로 어패류의 대중 수출이 급감하면서 동북3성의 위상이 추락하였다.<sup>16</sup>

---

<sup>16</sup> 배종렬, “북·중 경제관계의 특성과 변화 전망,” 『수은북한경제』, 2006년 겨울호 (한국수출입은행, 2006), p. 55.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북·중무역에서 차지하는 랴오닝성의 비중은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의 비중을 합한 것보다 더 높다. 랴오닝성의 비중은 수출면에서는 2001년 이후 다른 2성의 합계보다 절대적으로 높지만, 수입면에서는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헤이룽장성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만큼 미미하지만, 수입면에서는 랴오닝성 다음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중국 최대 유전인 헤이룽장성 다칭(大慶)으로부터 송유관을 통해 원유(HS 2709)가 수입되기 때문이다.<sup>17</sup>

표 III-4 북한의 중국 동북3성 수출입 비중 변화

(단위: %)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동북3성	71.3	71.0	70.6	73.4	78.7	76.8	72.5	67.2	65.4	68.9	75.6	69.7
	요령성	37.9	36.9	32.6	38.9	47.7	46.7	43.1	35.9	33.9	38.5	35.3	
	길림성	16.4	18.8	18.6	15.8	15.6	14.4	14.5	15.3	13.9	13.7	22.2	
	흑룡강성	17.1	15.3	19.3	18.8	15.3	15.7	14.9	16.0	17.7	16.7	18.1	
수출	동북3성	79.2	92.0	89.9	83.2	93.5	94.3	84.9	70.9	71.6	64.9	71.4	62.0
	요령성	38.7	43.1	40.0	67.9	80.4	81.7	66.5	48.7	44.1	44.8	45.5	
	길림성	37.3	47.8	49.2	14.8	12.4	12.5	18.0	20.7	27.0	20.1	25.8	
	흑룡강성	3.2	1.1	0.7	0.5	0.8	0.1	0.4	1.6	0.4	0.1	0.1	

17. 북한은 다칭유전으로부터 약 400km에 걸쳐 송유관(단동북부-압록강-신의주-안주 부근)을 통해 원유를 공급받고 있다. 1976년 개통된 이 송유관은 보안 및 도난 방지를 위해 땅 속 및 압록강 바닥에 매설되어 있으며, 직경 40cm 정도로 연간 최대 400만 톤의 원유 수송이 가능하다. 『요미우리신문』, 2004년 12월 14일.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	동북3성	70.1	68.4	69.0	70.6	70.1	65.8	63.4	65.4	63.1	70.6	77.1	73.3
	요령성	37.8	36.1	32.0	30.4	28.8	24.6	25.9	29.9	30.0	35.9	31.4	
	길림성	13.0	15.1	16.1	16.1	17.5	15.7	11.9	12.8	8.9	11.1	20.9	
	흑룡강성	19.3	17.1	20.9	24.1	23.8	25.5	25.6	22.7	24.2	23.7	24.8	

주: 2009년은 상반기(1-6월) 비중.

자료: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KDI, "2010년 8월 북한경제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95.

북한의 동북3성에 대한 수출품목의 경우 랴오닝성의 상위 3개 품목은 의류·부속품(HS 62), 광·슬랙·회(26), 아연·제품(79)이고, 지린성은 광·슬랙·회(26), 철강(72), 어패류(0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반기 북한의 랴오닝성에 대한 수출 상위 3개 품목의 비중은 53.5%, 지린성에 대한 상위 3개 품목의 비중은 82.6%에 달하고 있다. 북한의 랴오닝성과 길림성에 대한 수출은 북한의 대중 수출구조를 반영하여 철강, 지하자원, 의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5 북한의 중국 동북3성 주요 수출입품목 비중

(단위: %)

구분	수입				수출			
	HS	품목명	2009. 1-6	2010. 1-6	HS	품목명	2009. 1-6	2010. 1-6
요녕성	87	차량·부품	8.9	12.6	62	의류·부속품	19.9	25.9
	27	광물성연료	6.9	11.0	26	광·슬랙·회	10.8	17.7
	84	기계류	9.0	8.8	79	아연·제품	4.0	9.9
길림성	61	의류·부속품	6.0	12.0	26	광·슬랙·회	18.7	34.2
	10	곡물	15.7	10.7	72	철강	20.8	28.2
	87	차량·부품	8.9	8.0	03	어패류	24.0	20.2

구분	수입				수출			
	HS	품목명	2009. 1-6	2010. 1-6	HS	품목명	2009. 1-6	2010. 1-6
흑룡강성	27	광물성연료	81.5	93.4	39	플라스틱·제품	1.6	100.0
	10	곡물	4.1	4.4	27	광물성연료	66.8	-
	15	동식물성 유지	0.7	0.5	72	철강	31.6	-

자료: KDI, “2010년 8월 북한경제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97.

한편 북한이 동북3성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랴오닝성의 경우 상위 3개 품목은 차량·부품(HS 87), 주로 정제유로 구성된 광물성 연료(27), 원자로·보일러·기계류(84)이다. 지린성의 경우 의류·부속품(61), 곡물(10), 차량·부품(87)의 순으로 나타났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의 경우 북한의 수입 상위 3개 품목의 비중이 30% 수준이라는 점에서 북한은 이들 2성으로부터 다양한 품목을 수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헤이룽장성으로부터 특정 품목만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수입 상위 3개 품목인 광물성 연료(HS 27), 곡물(10), 동식물성 유지(15)의 비중이 98.3%에 달하고, 이 중 광물성 연료의 비중은 93.4%로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다. 북한이 헤이룽장성으로부터 수입하는 광물성 연료(27)의 대부분은 원유(HS 2709)이고, 일부 코크스탄이 포함되어 있다. 2010년 상반기에 헤이룽장성은 1억 8,576만 달러의 원유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북한이 헤이룽장성으로부터 도입하는 원유량은 매년 50만 톤을 상회하는 정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수입단가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8년에는 톤 당 783달러로 높아졌다.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과거 중국이 북한에 적용하던

I
II
III
IV
V
VI

우호가격과 같은 특혜가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자국의 수급 상황,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 등 경제적 요인들을 감안하여 상업적 베이스에서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다.

표 III - 6 북한의 대중 원유 수입 가격의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입액 (천 달러)	108,757	76,468	121,004	139,326	197,676	246,898	281,979	414,310	238,555
수입량 (만 톤)	57.9	47.2	57.4	53.2	52.3	52.4	52.3	52.9	52.0
단가 (달러/톤)	188	162	211	262	378	471	533	783	458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 나. 남북교역의 거래유형

### (1) 거래유형별 교역구조

남북교역에는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거래유형이 존재하는 이유는 남북교역이 일반 국가들 사이의 무역과는 달리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래는 물론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수반되는 각종 물자의 이동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교역 통계는 거래유형을 크게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하고 있다. 상업적 거래는 다시 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과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경공업협력사업, 기타 경제협력 등)으로 분류된다. 비상업적 거래는 대북지원(민

간지원과 정부지원)과 사회문화협력사업에 따른 물자 이동, 그리고 경수로건설사업(경수로 건설과 KEDO 중유 지원)과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된다.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한쪽이 증가하면 다른 쪽은 감소한다. 비상업적 거래는 일방적인 남쪽의 대북지원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 반입은 거의 없고 반출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남북교역에서의 반입은 거의 모두가 상업적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반출의 경우는 대북지원과 관련한 비상업적 거래의 반출이 확대되면 상대적으로 상업적 거래의 반출 비중은 줄어드는 형태로 나타난다.

비상업적 거래는 다양한 대북지원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 차원의 쌀과 비료의 대북지원이 정례화됨으로써 비상업적 거래는 한 때 4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지원이 중단되자 2008년과 2009년의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6.0%, 2.2%로 급격히 낮아졌다.

남북교역의 초기에는 상업적 거래만이 존재하였다. 대북지원이 시작된 1995년 이전까지는 비상업적 거래는 존재하지 않았고,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위탁가공교역이 시험적으로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상업적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02년에는 57.3% 수준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7년에는 79.8%로 높아졌다. 이후 대북지원이 중단되자 남북교역은 다시 상업적 거래 위주로 되돌아와 그 비중은 2008년 94.0%, 2009년 97.8%로 나타났다.

I
II
III
IV
V
VI

표 III-7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의 규모와 비중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상업적 거래						비상업적 거래						합계
	반출		반입		반출입		반출		반입		반출입		
	금액	비중1	금액	비중2	금액	비중3	금액	비중1	금액	비중2	금액	비중3	
1989	0.1	100.0	18.7	100.0	18.7	100.0	0.0	0.0	0.0	0.0	0.0	0.0	18.7
1990	1.2	100.0	12.3	100.0	13.5	100.0	0.0	0.0	0.0	0.0	0.0	0.0	13.5
1991	5.5	100.0	105.7	100.0	111.3	100.0	0.0	0.0	0.0	0.0	0.0	0.0	111.3
1992	10.6	100.0	162.9	100.0	173.4	100.0	0.0	0.0	0.0	0.0	0.0	0.0	173.4
1993	8.4	100.0	178.2	100.0	186.6	100.0	0.0	0.0	0.0	0.0	0.0	0.0	186.6
1994	18.2	100.0	176.3	100.0	194.5	100.0	0.0	0.0	0.0	0.0	0.0	0.0	194.5
1995	53.4	82.9	222.9	100.0	276.3	96.2	11.0	17.1	0.0	0.0	11.0	3.8	287.3
1996	55.4	79.5	182.4	100.0	237.8	94.3	14.3	20.5	0.0	0.0	14.3	5.7	252.0
1997	60.0	52.1	190.3	98.6	250.3	81.2	55.2	47.9	2.8	1.4	58.0	18.8	308.3
1998	90.3	69.6	92.3	100.0	182.5	82.2	39.4	30.4	0.0	0.0	39.4	17.8	221.9
1999	114.5	54.0	121.6	100.0	236.1	70.8	97.4	46.0	0.0	0.0	97.4	29.2	333.4
2000	121.0	44.4	152.4	100.0	273.3	64.3	151.8	55.6	0.0	0.0	151.8	35.7	425.1
2001	79.0	34.8	176.2	100.0	255.2	63.3	147.8	65.2	0.0	0.0	147.8	36.7	403.0
2002	96.4	26.0	271.6	100.0	367.9	57.3	273.8	74.0	0.0	0.0	273.8	42.7	641.7
2003	140.5	32.3	289.3	100.0	429.8	59.3	294.4	67.7	0.0	0.0	294.4	40.7	724.2
2004	178.5	40.6	258.0	100.0	436.5	62.6	260.5	59.4	0.0	0.0	260.5	37.4	697.0
2005	349.5	48.9	340.0	99.9	689.5	65.3	365.9	51.1	0.3	0.1	366.2	34.7	1,055.8
2006	409.7	49.3	518.4	99.8	928.1	68.8	420.5	50.7	1.2	0.2	421.7	31.2	1,349.7
2007	663.2	64.7	765.3	100.0	1,428.5	79.8	362.4	35.3	0.0	0.0	362.5	20.2	1,790.9
2008	779.7	87.8	932.2	100.0	1,711.9	94.0	108.4	12.2	0.1	0.0	108.5	6.0	1,820.4
2009	707.9	95.0	934.2	100.0	1,642.1	97.8	37.0	5.0	0.0	0.0	37.0	2.2	1,679.1

주 1): 전체반출에서의 비중, 2): 전체반입에서의 비중, 3): 전체교역에서의 비중.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호.

## (2) 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변화

남북교역의 초기 단계에서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이 전부였다. 1992년부터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되면서 일반교역의 비중은 감소하고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증가해 왔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기 전인 1997년의 남북교역은 거래성 교역, 즉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으로만 이루어졌다. 1997년 상업적 거래에서 일반교역은 68.4%, 위탁가공교역은 31.6%를 차지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되면서 상업적 거래의 유형이 다양화 되었다. 금강산관광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반출이 늘어나면서 1998년 상업적 거래에서 경제협력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1.3%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 관련 물자의 이동은 상업적 거래 중 거래성 교역 비중의 감소를 수반하게 된다.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물자의 반출은 줄어들고, 기타 경제협력사업 관련 물자의 반출이 소폭이지만 증가하면서 상업적 거래에서 차지하는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은 2003년에는 4.9%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 기간 전반적인 남북교역 확대에 따라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은 높아져서 2003년 거래성 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상업적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1%를 기록하였다.

●표 III-8 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비중 (반출입 기준)

(단위: %)

연도	거래성 교역			경제협력사업				
	일반 교역	위탁가공 교역	소계	개성 공단	금강산	경공업 협력	기타 경제협력	소계
1989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990	100.0	0.0	100.0	0.0	0.0	0.0	0.0	0.0

연도	거래성 교역			경제협력사업				
	일반 교역	위탁가공 교역	소계	개성공단	금강산	경공업 협력	기타 경제협력	소계
1991	100.0	0.0	100.0	0.0	0.0	0.0	0.0	0.0
1992	99.5	0.5	100.0	0.0	0.0	0.0	0.0	0.0
1993	96.2	3.8	100.0	0.0	0.0	0.0	0.0	0.0
1994	86.8	13.2	100.0	0.0	0.0	0.0	0.0	0.0
1995	83.4	16.6	100.0	0.0	0.0	0.0	0.0	0.0
1996	68.7	31.3	100.0	0.0	0.0	0.0	0.0	0.0
1997	68.4	31.6	100.0	0.0	0.0	0.0	0.0	0.0
1998	39.8	38.9	78.7	0.0	20.6	0.0	0.7	21.3
1999	37.9	42.2	80.1	0.0	17.2	0.0	2.7	19.9
2000	40.4	47.3	87.7	0.0	5.9	0.0	6.4	12.3
2001	43.7	49.0	92.6	0.0	3.1	0.0	4.3	7.4
2002	46.7	46.5	93.2	0.0	3.2	0.0	3.5	6.8
2003	52.0	43.0	95.1	0.0	3.7	0.0	1.2	4.9
2004	39.3	40.3	79.6	9.6	9.6	0.0	1.3	20.4
2005	30.4	30.4	60.8	25.6	12.6	0.0	0.9	39.2
2006	32.8	27.3	60.0	32.2	6.1	0.0	1.7	40.0
2007	32.3	23.1	55.4	30.8	8.0	5.0	0.8	44.6
2008	23.3	23.9	47.2	47.2	3.7	0.7	1.2	52.8
2009	15.6	25.0	40.6	57.3	0.5	0.0	1.6	59.4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호.

개성공단사업이 가동되기 시작하면서 또다시 상업적 거래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2004년부터 상업적 거래에서 차지하는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은 20%를 넘어섰고, 개성공단사업이 본격 가동한 2005년과 2006년에는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이 40% 수준으로 높아졌다. 최근에는 일반교역이 위축되면서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은 더욱 높아져

2009년에는 59.4%를 기록하였다.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에서 경제 협력사업이 거래성 교역보다 더욱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다.

최근 남북교역은 상업적 거래중심으로 확대·발전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에는 감소로 전환하였다. 2008년도 상업적 거래는 17.1억 달러로 2007년 대비 19.6% 증가(반입은 9.3억 달러로 21.8% 증가, 반출은 7.8억 달러로 17.1% 증가)해 전체 남북교역에서 94.0%를 차지하였다. 2008년 상업적 거래의 증가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증가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과 생산품 반입의 증가 및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에 따른 것이다. 2008년 위탁가공교역액은 4.1억 달러로 2007년 대비 23.8% 증가하였다.<sup>18</sup> 동시에 2008년 개성공단 관련 교역액(물자의 반출입)은 8.1억 달러로 2007년 대비 83.5%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sup>19</sup>

표 III -9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규모 및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반출	반입	반출입	교역수지	반출	반입	반출입	교역수지
1989	0.1	18.7	18.7	-18.6	0.0	0.0	0.0	0.0
1990	1.2	12.3	13.5	11.1	0.0	0.0	0.0	0.0
1991	5.5	105.7	111.3	-100.2	0.0	0.0	0.0	0.0
1992	10.4	162.2	172.6	-151.9	0.2	0.6	0.8	-0.4
1993	4.4	175.2	179.6	-170.8	4.0	3.0	7.0	1.0

<sup>18</sup> 이 중 섬유류의 위탁가공이 78%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 밖에도 깡마늘 등 농림수산물, TV·라디오카세트 등 전자·전기제품, 휴대용라이터 등 생활용품 등도 위탁가공교역의 주요 품목이다.

<sup>19</sup> 2008년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품목 중 섬유류는 27%, 전자·전기제품 21%, 기계류 21.1%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연도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반출	반입	반출입	교역수지	반출	반입	반출입	교역수지
1994	6.9	162.0	168.9	-155.1	11.3	14.3	25.7	-3.0
1995	28.7	201.7	230.4	-173.0	24.7	21.2	45.9	3.5
1996	17.2	146.2	163.4	-128.9	38.2	36.2	74.4	1.9
1997	23.8	147.4	171.2	-123.5	36.2	42.9	79.1	-6.7
1998	21.9	50.8	72.7	-28.9	29.6	41.4	71.0	-11.8
1999	21.7	67.7	89.4	-46.1	45.9	53.7	99.6	-7.9
2000	32.0	78.6	110.5	-46.6	57.2	72.0	129.2	-14.7
2001	10.5	100.9	111.4	-90.4	52.3	72.6	124.9	-20.2
2002	4.4	167.4	171.8	-163.0	68.4	102.8	171.2	-34.4
2003	46.2	177.4	223.7	-131.2	73.4	111.6	185.0	-38.3
2004	21.2	150.1	171.3	-128.9	68.2	107.7	176.0	-39.5
2005	20.9	188.9	209.8	-168.1	78.5	131.2	209.7	-52.7
2006	22.2	282.0	304.1	-259.8	93.6	159.4	253.0	-65.8
2007	20.2	441.2	461.4	-421.1	125.0	204.5	329.5	-79.5
2008	33.0	366.4	399.4	-333.5	151.0	257.3	408.3	-106.3
2009	10.9	245.2	256.1	-234.2	155.7	254.0	409.7	-98.4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호.

2009년 상업적 거래는 16.4억 달러로 2008년 대비 4.0% 감소(반입은 9.3억 달러로 0.2% 증가, 반출은 7.1억 달러로 9.2% 감소)해 전체교역에서 97.8%를 차지했다. 상업적 거래의 감소 요인은 일반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관광사업 관련 물자의 반출이 거의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에서 광산물 반입의 대폭 감소로 일반교역의 반출입은 35.8%나 대폭 감소하였다.

상업적 거래에서 일반교역은 북한의 외화수급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래의 특성상 일반교역은 물자의 이동과 외화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남북교역에서의 일반교역은 일방적인 북한의 수출(남한의 반입) 구조로 진행되어 왔다. 다시 말하면 일반교역에 있어서 남한의 교역수지 적자는 고스란히 북한의 외화수입으로 연결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일반교역을 통해 북한은 4억 2,100만 달러의 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2008년과 2009년에는 북한의 일반교역 수지 흑자가 비록 줄어들었으나 각각 3억 3,300만 달러, 2억 3,4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 (3) 비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변화

남북교역에서 비상업적 거래는 1995년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고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한 대북 중유 지원으로 시작되었다. 1995년 비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비중은 대북지원 2.0%, KEDO중유 9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북지원이 증가하면서 비상업적 거래에서 대북지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한 반면, KEDO 중유의 비중은 낮아졌다. 2000년 비상업적 거래에서 대북지원은 68.8%로 높아졌고, KEDO중유는 7.7%로 낮아졌다. 경수로건설이 진행되면서 건설 장비와 물자의 반출로 인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경수로건설의 비중도 상당한 수준을 점하였다.

2003년부터 KEDO중유 지원과 경수로건설이 중단되면서 대북지원의 비중은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특히 2004년~2006년 사이에는 대북지원이 비상업적 거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였다. 2004년부터 대북지원은 민간과 정부지원으로 분리되어 발표되고 있다. 대북지원에서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민간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I

II

III

IV

V

VI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차원의 쌀, 비료 등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7년과 2008년에 대북지원의 비중이 위축된 것은 6차회담에 따른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에너지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의 경우 비상업적 거래에서 대북지원의 비중은 61.8%, 에너지(중유)는 37.1%를 차지하였다. 에너지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나 것은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거의 중단되어 대북지원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비상업적 거래는 2002년부터 계속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고, 특히 2007년부터는 대북지원의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상업적 거래는 2008년 6.0%, 2009년 2.2%로 낮아졌다. 2008년의 경우 비상업적 거래는 1.1억 달러로 2007년 대비 70.4% 감소하였고, 이 중 비료·식량 등 대북지원은 79.6% 감소하였다. 2009년에도 비상업적 거래는 3,695만 달러로 크게 줄어들어 2008년 대비 65.9% 감소하였다. 최근 대북지원(민간지원 및 정부지원)이 크게 감소한 것이 비상업적 거래 비중 축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비상업적 거래에서 대북지원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은 신종플루에 대한 방역차원에서 타미플루 등 의약품 지원이 예외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표 III -10 비상업적 거래의 유형별 비중 (반출 기준)

(단위: %)

연도	대북지원			사회문화 협력	경수로 건설	KEDO 중유	에너지 (중유)	합계
	소계	민간지원	정부지원					
1995	2.0	-	-	0.0	0.0	98.0	0.0	100.0

연도	대북지원			사회문화 협력	경수로 건설	KEDO 중유	에너지 (중유)	합계
	소계	민간지원	정부지원					
1996	10.3	-	-	0.0	0.0	89.7	0.0	100.0
1997	15.2	-	-	0.0	32.3	52.5	0.0	100.0
1998	39.7	-	-	0.0	10.0	50.3	0.0	100.0
1999	44.6	-	-	0.0	14.8	40.6	0.0	100.0
2000	68.8	-	-	0.0	23.5	7.7	0.0	100.0
2001	74.8	-	-	0.0	22.8	2.3	0.0	100.0
2002	77.9	-	-	0.0	21.4	0.7	0.0	100.0
2003	91.9	-	-	0.0	8.1	0.0	0.0	100.0
2004	99.2	69.1	30.1	0.7	0.2	0.0	0.0	100.0
2005	99.7	66.3	33.4	0.2	0.1	0.0	0.0	100.0
2006	99.7	96.9	2.8	0.3	0.0	0.0	0.0	100.0
2007	89.6	67.8	21.8	0.2	0.0	0.0	10.2	100.0
2008	61.8	61.5	0.3	1.1	0.0	0.0	37.1	100.0
2009	98.4	58.7	39.7	1.6	0.0	0.0	0.0	100.0

주: 대북지원이 민간지원과 정부지원으로 구분되어 통계가 산출된 것은 2004년부터임.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각 호.

### 3. 수출입품목구조의 변화

#### 가. 수출품목구조

##### (1) 대중 수출구조

북한의 대중 수출상품에서 중요한 품목은 농림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제품, 섬유·가죽제품이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6~59%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

I  
II  
III  
IV  
V  
VI

후에는 비중이 급감해 2008년에는 7.6%에 불과하였다. 최근 광산물의 수출비중이 급격히 신장하고 있다. 광산물의 대중 수출비중은 2004년 19.5%에서 2008년에는 59%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철강·금속제품은 2000년까지 20%대 후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에는 10%대로 떨어졌다. 2004년에 20% 정도로 다소 높아졌으나 2008년 15.5%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섬유·가죽제품은 2000년대 초중반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2004년을 제외한 2001년~2006년 기간 13~17%를 차지하였다.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품목군은 목재·펄프·종이라 할 수 있다. 2000년까지 30% 내외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이후에는 1~5%로 낮아졌다.

● 표 III-11 북한의 대중 수출상품구조

(단위: %)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플라스틱	섬유가죽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1998	10.9	26.0	0.9	2.4	27.8	24.7	7.4	0.0
1999	20.2	11.8	1.9	2.5	33.5	28.1	1.6	0.4
2000	15.6	16.5	4.6	7.2	26.8	26.9	2.5	0.0
2001	45.9	6.6	0.3	17.3	2.8	15.1	12.0	0.0
2002	58.8	7.9	0.3	16.1	3.5	11.1	2.3	0.1
2003	56.2	8.4	0.3	14.6	3.5	16.0	1.0	0.0
2004	47.3	19.5	0.3	9.5	2.6	19.9	0.8	0.0
2005	21.6	41.7	0.9	13.5	3.1	18.3	1.0	0.0
2006	13.3	48.6	0.9	15.6	5.7	12.7	1.1	0.0
2007	7.3	59.4	0.6	12.4	3.6	13.5	1.5	0.0
2008	7.6	58.5	1.3	12.1	1.0	15.5	1.5	0.0

자료: UN data.

북한의 대중 수출품목은 광물자원, 광물성연료, 철강, 아연, 어패류 등의 1차 상품과 의류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2008년 북한의 대중 상위 10위 수출품목은 광·슬랙·회(HS 26), 광물성연료(27), 철강(72), 의류·부속품(62), 어패류(03), 미분류(99), 토석류(25), 알루미늄·제품(76), 메리야스·편물의류(61), 전기기기·부품(85) 등이다.

2000년대 초반 어패류(HS 03)는 북한의 대표적인 수출품으로 2001년부터 대중국 수출 증가를 이끌어 왔다. 어패류(03)는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2002년 52.8%, 52.3%, 2004년 44.7%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4년까지 최대 수출품이었던 어패류(03)는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급감해 대중국 수출 비중은 2006년 9.3%로 줄어들었다. 2008년 어패류(03)의 수출액은 4,000만 달러 정도이고 대중 수출 비중은 5.3%로 낮아졌다.

광·슬랙·회(HS 26)의 대중 수출액은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도 2006년에는 25.3%로 높아져 대중국 제1의 수출품목이 되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광·슬랙·회(26)의 주요 구성품목은 철광석이다. 북한은 중국에 철광석을 수출해 왔지만 2003년 이전까지 수출액은 1,000만 달러 이하였다. 그렇지만 2004년부터 철광석 수출이 급증하면서 2008년 광·슬랙·회(26)의 수출액은 2억 1,298만 달러로 늘어났다. 철광석의 수출 확대는 중국기업이 북한 무산광산에 투자한 대가로 철광석의 수입물량을 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중 최대 수출품목으로 자리 잡은 광·슬랙·회(26)는 2007년 이후에도 대중 수출에서 광물성연료(27)와 1, 2위 자리를 번갈아 차지하고 있다.

광물성연료(HS 27)의 대중 수출액은 2004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22% 정도를 기록하였다. 이것은 유가급등에 따른 중국 내 대체에너지 수요 증가로 석탄(무연

I
II
III
IV
V
VI

탄)의 대중 수출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북한 주력 수출상품의 하나인 무연탄의 대중 수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후반 수해를 입었던 북한의 탄광은 2000년대 중반에는 어느 정도 생산이 정상화되어 수출 여력을 확보하였다. 2008년 광물성연료(27)의 대중 수출금액은 2억 880만 달러로 대중 수출에서 27.5%를 차지하였다.

대중 수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품목 중의 하나는 철강(HS 72)이다. 철강(72)이 대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말과 2000년의 20% 내외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는 10%대 초반 수준으로, 이후에는 10%대 아래로 다시 낮아졌다. 그렇지만 철강(72)은 단일품목으로는 여전히 대중 수출에서 3, 4위를 점하고 있는 북한의 주력 수출품목의 하나이다.

나무·목재(HS 44)는 2000년까지 북한의 대중 제1 수출 품목이었으나 2000년대 초반 그 비중은 3% 내외로 급감하였다. 나무·목재(44)는 2000년대 중후반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 중에서 6번째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방직용 섬유 및 의류제품의 대중 수출액은 2000년대 들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섬유·의류제품의 대부분은 의류·부속품(HS 62)이다. 이 품목은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 중의 하나로 2008년에는 대중 수출 비중 10.2%를 기록하면서 상위 3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의류·부속품(62)은 북한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조를 거친 제품으로서 북한 제조업에서 방직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표 III-12 북한의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순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HS	비중										
1	44	27.4	44	26.7	03	52.8	03	44.7	26	25.3	26	28.0
2	72	18.3	72	23.3	62	14.1	72	13.0	27	21.9	27	27.5
3	27	13.8	03	10.9	72	10.3	26	10.3	62	13.5	72	11.0
4	26	10.4	27	9.2	27	4.2	27	9.1	03	9.3	62	10.2
5	84	6.2	26	7.0	12	3.7	62	8.4	72	7.5	03	5.3
6	03	4.8	50	6.1	44	3.4	79	5.9	44	5.7	99	2.5
7	12	3.1	39	4.1	26	3.2	44	2.6	99	2.2	25	2.5
8	76	2.6	78	2.8	85	2.0	12	1.2	08	2.1	76	2.5
9	74	1.6	12	2.4	07	1.5	08	0.8	76	2.0	61	1.4
10	78	1.6	07	1.5	61	1.1	61	0.6	79	2.0	85	1.4

자료: UN data.

## (2) 대남 수출구조

북한의 대남 수출품목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가죽제품과 농림수산물이다. 북한이 수출하는 섬유·가죽제품은 거의 모두가 의류·섬유제품이다. 이 품목은 수출비중이 27~44%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 최대 수출상품군이다. 2006년과 2007년 비중이 30% 이하로 떨어졌으나 2008년에는 37.8%로 높아졌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출비중이 22~51%에 있을 정도로 기복이 매우 심한 편이다. 농림수산물 중에서 북한의 대남 주력 수출품목은 어패류(HS 03)와 채소·뿌리·과경(07) 등이다.

I  
II  
III  
IV  
V  
VI

철강·금속제품의 수출비중은 2003년부터 증가하고 있다. 이 품목군의 수출비중은 2003년 11.3%였으나 2007년 23.4%로 높아졌다. 그러나 2008년에는 다시 10.9%로 낮아졌다. 북한이 주로 수출하는 품목은 아연·제품(HS 79)이다. 광산물의 수출비중도 최근 높아져 2005년 8.6%에서 2007년에는 16.0%를 차지하였다. 북한이 한국에 수출한 품목은 토석류(25)에 속하는 천연모래이다. 기계·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전 기간에 걸쳐 3~8%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8년 전기기기·부품(85)의 반입이 급증하면서 15.1%로 높아졌다.

표 III-13 북한의 대남 수출상품구조

(단위: %)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플라스틱	섬유·가죽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1998	23.4	2.6	0.2	44.1	0.7	22.0	5.1	2.0
1999	39.3	2.2	0.2	40.5	0.4	13.3	3.9	0.2
2000	47.1	0.5	0.2	37.1	0.2	7.7	6.7	0.4
2001	50.9	2.1	0.5	33.6	0.4	5.6	6.3	0.7
2002	36.8	3.3	0.3	32.3	0.2	6.9	4.2	16.1
2003	44.2	6.2	0.3	33.9	0.2	11.3	3.3	0.7
2004	39.4	2.3	0.2	37.5	0.3	15.3	4.0	1.1
2005	33.0	8.6	0.6	36.1	0.4	13.5	7.0	0.9
2006	26.5	11.6	1.0	30.0	0.3	21.6	8.3	0.7
2007	24.0	16.0	0.7	26.8	0.6	23.4	8.0	0.5
2008	22.3	11.2	1.1	37.8	0.3	10.9	15.1	1.3

자료: UN data.

1998년과 2008년을 비교할 경우 북한의 대남 수출품목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08년 남북교역을 통한 남한의 반입(북한의 수출)

상위 5개 품목은 의류·부속품(HS 62), 어패류(03), 전기기기·부품(85), 토석류(25), 아연·제품(79) 등이다. 반면 1998년 상위 5개 품목은 의류·부속품(62), 아연·제품(79), 어패류(03), 종자·과실(12), 전기기기·부품(85)으로 나타났다. 1998년과 2008년의 반입 상위 품목을 단순 비교하면 북한의 대남 수출에서 종자·과실(12)은 중요도가 낮아지고 토석류(25)는 높아졌다.

북한의 대남 수출에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품목은 의류·부속품(HS 62)이다. 의류제품의 반입액은 1998년 3,212만 달러에서 2008년 2억 5,060만 달러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입 비중은 최근 다소 낮아졌으나 2008년 현재 26.9%를 차지하고 있다. 의류제품의 반입 증가는 위탁가공교역이 활성화되고 있고 개성공단의 주력 생산업종이 섬유제품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북한의 수출에서 중요한 품목은 어패류(HS 03)이다. 1998년 906만 달러에 불과했던 어패류(03)의 반입액은 2008년 1억 1,157억 달러로 늘어났다. 이 상품은 거의 대부분 연도에서 반입 2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반입비중은 2008년 현재 12.0%를 기록하였다.

아연·제품(HS 79)도 남한의 반입(북한의 수출)에서 대체로 3위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품목이다. 아연·제품(79)의 반입 비중이 가장 높았던 해는 1998년으로 18.8%였다.

채소·뿌리·괴경(HS 07)은 대체로 3~7%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상위 4~6위권에 들 정도로 반입실적이 좋은 품목이다. 한국은 북한으로부터 주로 말린 채소와 위탁가공을 통해 간마늘을 반입하고 있다. 종자·과실(12)은 1998년부터 3년 동안은 상위 4위였으나 점점 중요도가 감소해 2002년~2004년에는 8~9위로 밀려났으며 2006년 이후에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I
II
III
IV
V
VI

전 기간에 걸쳐 3~4%대를 차지하였던 전기기기·부품(HS 85)의 반입 비중은 2008년에 9.8%로 높아져서 수출에서 상위 3위 품목이 되었다. 2004년까지 반입금액은 1,000달러 이하였으나 2008년에는 9,140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남북교역에서 최근 전기기기·부품(85)의 반입 증가는 개성공단 주력 생산업종의 하나인 전기전자업종 생산품의 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토석류(HS 25)는 2004년까지 상위 10위권 밖에 있었지만 이후 4년간 7~14%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반입 3~4위 품목이 되었다. 한국은 이 상품군에 속하는 천연모래를 북한으로부터 일반교역을 통해 들여오고 있으나 반입량은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상위 6~10위에는 육류·어류 조제품(16), 메리야스·편물의류(61)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I-14 북한의 대남 수출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순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HS	비중										
1	62	34.8	62	32.0	62	29.8	62	35.2	62	25.4	62	26.9
2	79	18.8	03	22.6	03	22.3	03	21.7	03	15.8	03	12.0
3	03	9.8	79	7.7	97	15.5	79	15.2	79	15.7	85	9.8
4	12	4.8	12	6.5	79	6.6	07	7.9	25	10.7	25	8.0
5	85	4.2	85	4.7	07	3.9	16	3.6	07	5.6	79	7.6
6	07	4.1	16	4.6	85	3.3	85	3.4	73	5.1	07	6.2
7	63	3.1	24	4.1	16	3.2	08	1.8	85	3.9	61	5.9
8	61	2.7	07	3.7	71	3.0	61	1.4	84	3.3	84	3.0

순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HS	비중										
9	72	2.4	08	2.5	12	2.4	12	1.4	16	2.9	27	2.7
10	08	2.2	61	1.9	24	1.7	25	1.4	61	2.4	64	2.4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 나. 수입품목구조

### (1) 대중 수입구조

북한의 대중 수입상품구조는 수출상품구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상품구조에서 광산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광산물의 수입 비중은 26~30% 정도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물도 북한의 수입에서 매우 주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농림수산물은 광산물과 달리 비중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다. 1998년 농림수산물의 수입 비중은 34.5%로 매우 높았으나 2008년의 경우에는 12.7%에 그쳤다.

광산물, 농림수산물 다음에는 기계·전기전자제품과 화학·고무·플라스틱이 자리하고 있다. 기계·전기전자제품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항상 10%대 중반을 유지하였다. 2000년대 초반보다는 후반에 비중이 다소 높아져서 2006년과 2007년에는 17%를 상회하였다. 화학·고무·플라스틱제품의 비중은 큰 변화 없이 11~16%를 차지하였다. 섬유·가죽제품은 최근 2~3년간 비중이 급증해 2005년과 2006년의 8%대에서 2008년에는 17.2%로 높아졌다.

I

II

III

IV

V

VI

표 III-15 북한의 대중 수입상품구조

(단위: %)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플라스틱	섬유기증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1998	34.9	25.8	16.0	7.2	1.0	5.4	8.5	1.2
1999	25.8	26.6	14.5	7.4	1.4	7.3	11.5	1.3
2000	15.9	28.1	12.2	11.8	1.5	8.7	16.3	0.6
2001	23.0	29.9	13.7	9.8	2.5	7.3	12.0	0.7
2002	21.6	27.7	16.2	9.1	1.8	7.6	14.4	1.0
2003	29.2	30.4	11.7	7.2	1.4	5.5	12.6	1.1
2004	29.8	27.9	10.8	6.7	1.3	8.2	13.5	1.2
2005	24.4	29.1	12.5	8.2	1.2	7.1	15.8	1.2
2006	21.2	30.1	13.3	9.0	1.0	5.3	17.7	1.2
2007	19.1	30.6	12.4	11.9	1.3	6.0	17.2	1.6
2008	12.7	30.8	12.1	17.2	1.1	5.8	16.5	3.8

자료: UN data.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 품목은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와 기계·철강, 식용육류와 곡물, 생필품인 전기기기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이다.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및 주요 원부자재, 소비재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2008년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5개 품목은 광물성연료(HS 27), 기계류(84), 전기기기·부품(85), 의류·부속품(61), 플라스틱·제품(39) 순으로 나타났다.

광물성연료(HS 27)는 북한의 대중 수입비중이 가장 큰 제품군이다. 광물성연료(27)의 수입비중은 2000년대에는 20%대 후반으로 매우 높지만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산유국인 북한은 원유를 거의 대부분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원

유 도입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으나 수입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6년의 대중 원유도입량은 2005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나 수입액은 국제 원유가 및 연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25% 정도 늘어났다.<sup>20</sup>

기계류(HS 84)와 전기기기·부품(85)의 수입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북한은 기계류(84)와 전기기기·부품(85)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이들 두 품목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합계 10% 미만이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기계류 및 전기기기(HS 84, 85)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어서고 있다. 대중 수입에서 2005년~2006년에 기계류(84)와 전기기기·부품(85)은 3, 4위를 점하였고, 2007년~2008년에는 기계류(84)는 2위, 전기기기·부품(85)은 3위를 차지하였다.<sup>21</sup> 최근 기계류의 대중 수입 증가는 중국의 대북투자 증가에 따른 생산설비의 도입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방직용 섬유 및 의류 부속품을 중국에서 꾸준히 들여오고 있다. 북한은 의류·봉제를 중심으로 임가공 등 위탁제조를 통해 중국에 의류제품의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의류제품의 수출을 위해 북한이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는 것은 생산용 원자재인 인조장섬유(HS 54)와 인조단섬유(55)이다. 2008년 북한의 인조장섬유(54) 수입액은 5,502만 달러로 2.7%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동시에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메리야스·편물의류(61)를 수입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 수입이 늘어나 2008년 수입 비중은 4.3%로 높아졌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식용육류(HS 02), 곡물(10),

<sup>20</sup>- 2009년의 경우 원유 도입량은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이지만 수입액은 42%나 감소해 광물성연료(HS 27)가 대중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3%로 낮아졌다. 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4.

<sup>21</sup>- 2009년 기계류(84)와 전기기기(85)의 대중 수입 비중은 각각 8.5%, 7.0%를 차지해 이들 두 품목의 비중 합계는 15%를 넘어섰다. 위의 책, p. 24.

I
II
III
IV
V
VI

제분제품(11)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식용육류(02)의 수입은 2003년부터 급격히 늘어나 2004년에는 수입비중이 17.6%를 차지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식용육류(02)의 수입액은 1억 달러 이상, 수입비중은 9%대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7년에는 식용육류(02)의 수입비중은 3%로 줄어들었고, 2008년에는 대중 수입에서 10위권 아래로 밀려났다. 북한의 대중 수입에서 곡물(10)은 2003년까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2% 내외로 크게 축소되었다. 제분제품(11)의 경우 대중 수입 비중은 2000년~2006년 기간 2% 내외를 유지하였다.

표 III -16 북한의 대중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순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HS	비중										
1	27	23.8	27	26.2	27	25.3	27	25.6	27	28.2	27	28.8
2	10	14.5	10	7.6	10	6.4	02	17.6	02	9.1	84	7.2
3	11	7.0	87	6.4	85	5.9	85	5.8	85	7.9	85	5.0
4	12	4.8	72	5.0	84	5.6	84	5.0	84	6.7	61	4.3
5	39	4.3	99	4.0	39	5.4	72	5.0	39	4.2	39	3.9
6	72	3.5	85	4.7	72	4.4	39	4.1	54	3.1	87	3.3
7	31	3.1	39	3.8	31	4.3	87	2.3	87	2.3	54	2.7
8	87	2.8	62	3.7	12	2.3	54	2.3	72	2.2	72	2.4
9	85	2.7	84	3.2	02	2.2	10	1.9	11	2.2	62	2.3
10	15	2.6	12	2.4	11	2.2	11	1.8	15	2.2	15	2.3

자료: UN data.

## (2) 대남 수입구조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군은 화학·고무·플라스틱 제품, 섬유·가죽제품, 기계·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물이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화학·고무·플라스틱제품의 비중이 높은 것은 정부차원의 대북 비료지원이 이 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물의 비중이 매우 높았던 해에는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이 있었다. 섬유·가죽제품은 위탁가공교역과 개성공단 제품 생산을 위한 의류·섬유 원자재 및 부품의 대북 반출에 영향을 받는다.

기계·전기전자제품의 경우 기계류는 초기에는 KEDO 경수로 건설용 설비와 관련되어 있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공장건설용 설비 및 장비의 대북 반출에 따른 것이다. 전기전자제품은 위탁가공교역과 개성공단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반제품의 반출에 기인한다.

표 III-17 북한의 대남 수입상품구조

(단위: %)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플라스틱	섬유가죽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1998	14.7	16.3	6.8	23.8	0.9	6.9	26.3	4.2
1999	7.6	23.9	21.7	18.9	1.1	7.7	16.2	3.1
2000	9.0	7.4	36.7	16.9	0.7	5.0	22.1	2.2
2001	14.2	4.8	29.8	24.1	0.5	6.9	17.5	2.3
2002	29.5	3.6	22.8	18.4	0.8	6.8	15.9	2.2
2003	28.3	3.4	20.2	20.7	0.7	6.6	11.1	8.8
2004	14.8	11.5	28.4	20.9	1.5	5.0	15.8	2.1
2005	19.9	7.7	26.3	12.5	1.4	11.7	18.6	1.9

I  
II  
III  
IV  
V  
VI

연도	농림수산	광산	화학·고무·플라스틱	섬유·기증	목재·펄프·종이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잡제품
2006	25.3	7.2	20.4	13.8	1.4	12.9	17.7	1.3
2007	13.0	12.2	17.0	22.9	1.2	11.3	21.0	1.5
2008	8.1	7.7	7.1	26.7	1.9	18.9	27.8	1.8

자료: UN data.

1998년과 2008년 사이 남북교역의 반출(북한의 대남 수입)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98년 상위 5개 품목은 광물성연료(HS 27), 차량·부품(87), 기계류(84), 철강제품(73), 제분제품(11) 등이다. 2008년의 경우 전기기기·부품(85), 기계류(84), 철강제품(73), 인조단섬유(55), 철강(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위권에 공통으로 포함된 품목은 기계류(84)와 철강제품(73)뿐이다.

남북교역에서 반출(북한의 대남 수입)은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반출에서 차지하는 비상업적거래의 비중은 1998년 30.4%에서 2002년 74.0%로 높아졌다. 이후 계속 감소해 2008년에는 불과 12.2%로 낮아졌다.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여러 형태의 대북지원과 관련되어 있다.

남북교역에서 남한의 반출(북한의 수입)은 남북교역의 특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 대북 반출의 경우 거래성교역 중 일반교역은 거의 없고 대부분 위탁가공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통한 물자의 반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 비상업적 거래를 통한 대북 반출에는 대북지원용 물자, 경수로 건설용 장비와 물자, 그리고 KEDO의 중유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남북교역의 반출 관련 특성이 북한의 대남 수입품목구조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의 대남 수입품목 중에서 비료(HS 31)는 1999년~2007년 기간

상위 1~2위를 차지하였고, 그 비중은 8~28%에 이르렀다. 우리 정부가 이 기간 매년 30만 톤 정도의 비료를 인도적 차원에서 무상 지원한 결과이다. 또한 곡물(10)도 2002년~2007년에만 대남 수입 비중 7~25%를 차지하면서 상위 1~4위를 차지하였다. 정부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수입상품 상위 10위권에 포함되는 광물성연료(HS 27)는 모두가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중유 및 우리 정부의 에너지(중유) 대북지원분이다. KEDO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에 중유를 제공하였다. 한편 우리 정부도 6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7년과 2008년 대북 에너지(중유)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이와 같이 광물성연료(27)는 중유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진 해에 북한의 대남 수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기계류·부품(HS 84)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수입 비중 5~11%를 차지하면서 상위 10위권에 포함되었다. 이것은 경수로 건설 공사가 중단되기 전인 2003년까지는 경수로 건설용 설비와 물자의 반출에 따른 것이며, 2004년부터는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설비와 장비의 반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철강제품(73) 또한 전 기간에 걸쳐 3~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초기에는 금강산관광사업 및 경수로 건설용, 후기에는 개성공단 관련 공장 건설용 반출에 기인한다. 최근 이 품목의 비중이 7~9%로 높아진 것은 개성공단 공장 건설용 철강구조물의 반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거의 상업적 거래를 통한 반출로만 이루어진 품목은 전기기기·부품(HS 85)과 섬유·의류 원자재 및 부속품이라 할 수 있다. 전기기기·부품(85)은 거의 전 기간에 걸쳐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품목으로 3~12%의 비중을 차지하면서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

I
II
III
IV
V
VI

다. 이것은 전기전자제품의 대북 위탁가공교역 및 개성공단에서의 생산을 위한 자재 및 반제품의 반출에 기인한다. 대북 반출 상위 품목에는 위탁가공 및 개성공단 의류제품 생산을 위한 섬유류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다. 인조단섬유(55)는 거의 전 기간 상위 10위권 내에 등장하는 품목이다. 면(52)과 의류 및 관련 부속품(61, 62)도 가끔 10위권 내에 포함되었다.

표 III-18 북한의 대남 수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

순위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HS	비중										
1	27	15.7	31	28.7	10	25.1	31	16.3	10	22.6	85	12.3
2	87	10.4	85	9.4	31	18.7	10	8.3	31	15.5	84	11.3
3	84	7.8	84	8.0	84	7.2	30	7.9	73	9.2	73	9.4
4	73	5.6	27	5.9	73	5.7	61	6.0	84	7.8	55	8.8
5	11	5.5	30	4.7	55	4.9	85	5.5	85	6.0	72	4.8
6	55	5.1	24	4.4	85	4.9	25	5.4	27	3.9	52	4.5
7	52	4.6	87	4.1	62	3.1	55	5.1	55	3.3	27	4.5
8	85	3.6	73	3.4	61	2.7	84	5.0	62	2.8	62	3.2
9	39	3.3	55	3.3	87	2.7	87	4.0	25	2.4	87	2.7
10	58	3.2	51	2.6	51	2.5	27	3.9	52	1.9	82	2.6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 다. 산업별 · 품목별구조

### (1) 북 · 중무역

북·중무역의 교역형태는 양국 간 주요 수출입품목을 산업별로 정리한 산업별·품목별 교역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북·중무역이 급증한 2000년대 중반 이후 2005년~2009년을 대상으로 북한의 수출은 상위 10개 품목(HS 2단위), 수입은 상위 15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출의 경우 상위 10개 품목의 비중이 90%를 넘지만, 수입에서는 15개 품목의 비중이 70%를 넘는 정도라서 비교·분석을 위해 수입품목수를 많게 하였다.

산업별 주요 수출입품목은 북·중무역이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나무제품(HS 44)을 수출하는 반면, 화학·플라스틱 제품(31, 39, 40)을 수입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물, 광산물, 섬유·가죽, 철강·금속, 기계·전기전자 등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는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분석 대상 기간인 2005년 이후 북·중무역은 산업 내 무역 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비록 북·중무역의 중심 형태가 산업 내 무역이라 할지라도 산업별로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농림수산물의 경우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전혀 다른 품목들의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식용육류(HS 02), 곡물(10), 제분공업의 생식품(11), 담배(24) 등을 수출하고, 어류·갑각류·연체동물(03), 식용과실·견과류(08), 종자와 과실, 공업·의약품 식물(12) 등을 수입하고 있어 오히려 산업 간 무역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다.

광산물의 경우에는 북한은 토석류(HS 25) 광·슬랙·회(26), 광물성

I
II
III
IV
V
VI

연료(27)를 수출하는 반면 수입품목은 광물성연료(27)에 국한되어 있다.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광물성연료(27)의 경우 북한은 원유(2709), 석탄(2701), 석유조제품(2710)을 수입하는 반면, 석탄(2701)을 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에 무연탄(270111)을 수출하고, 유연탄(270112)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북한이 수출하는 광·슬랙·회(26)의 주종은 철광석(260111)이다.

철강·금속의 경우 북한은 선철·스크랩·철강(72), 알루미늄·제품(76), 아연·제품(79)을 수출하고 철강(72)과 철강제품(73)을 수입한다. 북한은 철강·금속 원자재를 수출하는 한편, 고품질의 철강과 철강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수평적 산업 내 무역에서 동일·유사 상품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철강(72)은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체로 북한은 저품위 철강을 수출하고 고품위 철강을 수입하는 구조이다.

표 III-19 북·중무역의 주요 수출입품목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수입								
농림수산물		02		02		02				
	03		03		03		03		03	03
	08		08						08	
		10		10		10		10		10
		11		11		11				
	12									
				15		15		15		15
						16		16		16
		24								

산업	2005		2006		2007		2008		2009	
	수출	수입								
광산물							25		25	
	26		26		26		26		26	
	27	27	27	27	27	27	27	27	27	27
화학·플라스틱		28								28
		31		31						
		39		39		39		39		39
		40		40		40		40		
나무(제품)	44		44		44					
섬유·가죽		54		54		54		54		54
				55				55		55
	61					61	61	61		61
	62		62		62		62	62	62	
										63
철강·금속	72	72	72	72	72	72	72	72	72	72
		73		73		73		73		73
			76		76		76		76	
	79		79		79				79	
기계·전기전자		84		84		84		84		84
		85		85	85	85	85	85		85
		87		87		87		87		87
기타교역			98		98		98			

주: 식용유류(HS 02), 어패류(03), 과실견과류(08), 곡물(10), 제분생산물(11), 종자과실(12), 동식물성유지(15), 육류·어류조제품(16), 담배(24), 토석류(25), 광슬랙회(26), 광물성연료(27), 무기화합물(28), 비료(31), 플라스틱제품(39), 고무제품(40), 목재·나무제품(44), 인조장섬유(54), 인조단섬유(55), 의류·부속품(61), 의류·부속품(메리야스·편물제외, 62), 방직용섬유기타(63), 철강(72), 강철제품(73), 알루미늄·제품(76), 아연·아연제품(79), 보일라기계류(84), 전기기기(85), 차량·부품(87), 기타교역(98).

I  
II  
III  
IV  
V  
VI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는 기계·전기전자의 경우에 북한은 기계류·부분품(HS 84), 차량·부품(87)을 일방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다만 전기기기·부품(85)은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섬유·가죽산업에 있어서 북한은 인조장섬유(54)와 인조단섬유(55) 등 의류제품을 생산하는 원자재를 수입하고, 의류·부속품(62)을 수출하고 있다. 북한은 2005년 이후 매년 5,000만 달러 이상의 의류제품(62)을 중국에 수출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으로부터 임가공 주문을 받아 생산된 것으로 보인다.

## (2) 남북교역

남북교역에서 교역의 일반적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래성 교역을 대상으로 최근 산업별·품목별 구조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2005년~2008년 기간 남한의 대북 반입·반출 상위 10개 품목(HS 2단위)을 선정하였다. 대북 반출 상위 10개 품목이 거래성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 이상이고, 반입의 경우에는 95% 내외를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높다.

남북한 거래성 교역의 중심 형태는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은 일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농림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등을 반입하는 구조이다. 이들 품목에 대한 이러한 남한의 일방적인 반입은 대부분 일반교역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 북한은 일반교역을 통해 주로 수산물, 석탄, 아연괴, 알루미늄 등을 남한에 제공하는 대가로 외화를 획득해 왔다.

한편, 섬유·가죽, 기계·전기전자산업에서는 북으로 반출과 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분야에서는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반출품목과 반입품목

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것은 남북한 산업 내 무역은 통상적인 수평적 산업 내 무역(horizontal intra-industry trade)이 아니라 위탁가공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수직적 산업 내 무역(vertical intra-industry trade)의 형태를 반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sup>22</sup> 그렇지만 품목 분류를 더욱 세분화할 경우 산업 내 무역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 간 무역으로 취급될 정도로 동일·유사 상품 간의 거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남한은 주로 섬유 및 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 원자재와 중간재를 북으로 반출하고 가공·조제된 최종재를 반입하는 위탁가공교역에 종사해 왔다.

남북한 위탁가공교역은 마늘, 섬유산업, 그리고 전기기기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농산물인 마늘은 반입과 반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세분류할 경우 양파·쪽파·마늘(HS 0703)에 해당한다. 생마늘을 북으로 보내 깎마늘 형태로 들여오는 위탁가공이 지난 수년간 급증하였다.

섬유산업 분야에서도 남북교역의 기본 형태는 위탁가공이다. 이를 반영해서 남북 간 주요 교역품목은 의류·부속품(HS 61, 62)이다. 이들 품목의 교역을 위해 남한은 의류 등 섬유제품을 만드는 원부자재라 할 수 있는 양모 등 식물(51), 면(52), 인조장섬유(54), 인조단섬유(55), 방직용 섬유직물(59), 메리야스·뜨개질 편물(60) 등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거래성 교역에서는 전기기기·부분품(HS 85)의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8527),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8528), 변압기(8504) 등은 반입·반출품목이 일치한다. 이 분야에서는 생산 프로세스 중 조립 및 단순 가공과 같은 생산단계를

<sup>22</sup>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2009), p. 73.

I
II
III
IV
V
VI

북으로 이전하고 북한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기계·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 기본적인 남북교역 패턴은 수직적 산업 내 무역의 형태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0 남북교역의 주요 반출입품목

구분	2005		2006		2007		2008	
	반입	반출	반입	반출	반입	반출	반입	반출
농림수산물	03		03		03		03	
	07		07		07	07	07	07
	12		12				12	
								15
광산물	16		16		16		16	
	25		25		25		25	
					27		27	
화학·플라스틱	71		71					
	39							
섬유·가죽				48				
		51		51		51		51
		52		52		52		52
		54		54		54		54
		55		55		55		55
		59						
						60		
철강·금속	61		61	61	61		61	
	62	62	62	62	62	62	62	
					72			
					76			
	79		79		79		79	

구분	2005		2006		2007		2008	
	반입	반출	반입	반출	반입	반출	반입	반출
기계·전기전자		84		84		84		84
	85	85	85	85		85	85	85
		89		89				
잡제품						96		96

주: 어패류(HS 03), 채소·뿌리·괴경(07), 종자과실(12), 육류·어류·연체동물조제품(16), 토석류(25), 광·슬랙·회(26), 광물성연료(27), 플라스틱·제품(39), (48), 양모 등 식물(51), 면(52), 인조장섬유(54), 인조단섬유(55), 방직용 섬유직물(59), 메리야스·뜨개질 편물(60), 의류·부속품(메리야스·편물 포함, 61), 의류·부속품(메리야스·편물 제외, 62), 진주·귀금속(71), 아연·제품(79), 선철·스크랩·철강(72), 알루미늄·제품(76), 기계류·부분품(84), 전기기기·부분품(85), 선박수상구조물(89), 잡품(96), 기타교역(98).

#### 4. 대북무역의 특징 비교

최근 북·중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첫째, 북한의 대중 교역의존도 심화이다. 전반적인 북·중관계가 복원되고 긴밀해지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2000년까지 하더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일본과 중국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6년 기준으로 북한의 대외교역(남북교역 제외)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56.7%로 높아졌고 2009년에는 78.5%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독주가 계속되면서 북·중무역은 북한 대외무역의 증대를 견인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 총액의 증가는 북·중무역의 증가와 정(+)의 관계를 보여 왔다.

둘째,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는 만성적인 성격을 띠면서 확대되고 있다. 북한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2002년~2004년 기간 매년 2억 달러 정도에 불과하였지만 대중 수입의 급증으로 2005년 이래 적자규

I
II
III
IV
V
VI

모가 더욱 확대되어 2008년에는 12.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수출품목이 제한된 북한으로서는 북·중무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대중 무역 적자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수출품목구조에 있어서 북한은 주로 광물자원, 철강, 아연, 수산물, 목재 등의 기초 원자재를 중국에 수출한다. 반면, 중국으로부터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연료, 기계·철강을 비롯해 식용육류와 곡물 및 각종 생활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북·중무역은 상대적으로 산업 내 무역(intra-industry trade)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많은 산업에 있어서 수출입품목이 달라 산업 간 무역의 성격을 반영한다. 철강, 의류, 석탄의 경우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제품의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북·중무역이 주로 동북3성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특징 중 하나이다.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성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말부터 북·중무역의 여러 유형중 하나인 변경무역에서 랴오닝성 단동의 위상이 지린성 연변지역을 추월하여 높아짐에 따라 동북3성 중에서는 랴오닝성의 비중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중무역에서 동북3성의 비중은 대체로 70%대를 차지하지만 동북3성의 비중이 심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다섯째, 북·중관계가 북·중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2000년대에 북·중무역의 증가율이 가장 낮은 3년은 2002년, 2006년, 2009년이다. 2002년 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하자 중국은 신의주특별행정구 장관에 임명된 양빈을 구속하고 북한인을 산업스파이 혐의로 체포하는 양국 간에는 긴장국면이 조성되었다. 2006년과 2009년에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런 현상에만 기초한다면 양국관계의

불화는 북·중무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전략물자인 원유를 매년 50만 톤 이상 북한에 제공해 왔고, 2005년 이후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2009년 북·중무역의 감소는 전반적인 세계금융 위기의 여파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북·중관계의 악화가 북·중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남북교역의 특징으로는 첫째, 비상업적 거래의 등장 및 규모에 따라 그 양상이 크게 달라져 왔음을 보여준다. 1995년 이전까지 남북교역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이 전부인 상업적 거래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1995년부터 경수로사업이 추진되고 대북지원이 시작되면서 비상업적 거래가 발생하였고, 2000년대 이후부터 대규모 대북지원이 정례화되면서 비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40%를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교역은 대북지원이 줄어들면서 다시 상업적 거래 중심으로 복귀하여 2009년 상업적 거래의 비중은 97.8%를 차지하였다.

둘째, 상업적 거래에서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경제협력사업의 비중 확대는 개성공단사업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관련 물자와 설비의 반출 및 개성공단 제품의 반입이 증가에 기인한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상업적 거래에서 차지하는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이 거래성 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비중을 앞지르고 있다. 2009년 상업적 거래에서 경제협력사업의 비중은 59.4%로 높아졌다. 상업적 거래에서 개성공단사업의 비중이 57.3%를 차지해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단에서 거의 전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거래성 교역에서 위탁가공교역은 안정적으로 성장해 온 반면 일반교역은 상당한 기복을 보여 왔다. 위탁가공교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I
II
III
IV
V
VI

로 성장해 2008년과 2009년 4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반면 일반교역은 1995년 230.4억 달러를 기록한 후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2003년 다시 223.7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07년 461.4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한 한 후 2009년에는 245.2억 달러로 급감하였다.

넷째, 북한은 남북교역의 거래성 교역(또는 실질교역)에서 지속적인 흑자를 시현하고 있다. 북한이 거래성 교역에서 흑자를 보이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일반교역이 우리의 일방적인 반입구조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동시에 위탁가공교역을 위해 제공되는 원자재 등의 반출금액보다 생산된 제품의 반입금액이 크기 때문이다. 일반교역에서 북한이 벌어들이는 경화 수입은 2007년 한 해에만 4억 2,110만 달러였다. 남북교역에서 일반교역은 북한 외화 획득의 주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대남 수출품목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섬유제품과 농림수산물이다. 반면,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군은 화학·고무·플라스틱제품, 섬유·가죽제품, 기계·전기전자제품, 농림수산물이다. 남북교역의 수출입품목구조는 위탁가공교역, 경제협력사업 및 대북지원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남북한 거래성 교역의 중심 형태는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이라 할 수 있다. 남한은 일방적으로 북한으로부터 농림수산물, 광산물, 철강·금속 등을 반입하는 구조이다. 북한은 일반교역을 통해 주로 수산물, 석탄, 아연괴, 알루미늄 등을 남한에 제공하는 대가로 외화를 획득해 왔다.





# 1. 투자와 경협사업의 추이

## 가. 중국의 대북투자

중국의 대북투자는 2000년대 들어와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중국의 대북투자는 규모가 작고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식당, 상점, 오락 등 업종에 국한되었다.<sup>23</sup> 이와 같이 2002년 북한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이전에 실현된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소규모 형태로 외부에 알려진 사례는 10여건이 전부였다.

그러나 ‘7.1조치’ 이후 북한에서 공장·기업소의 독립채산제가 확립되고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2004년부터 중국의 대북투자는 증가하고 투자영역도 확대되었다.<sup>24</sup> 2000년대 들어와서 중국 정부는 대북 투자를 장려하였고 북한도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다. 이와 관련 원자바오 총리는 2004년 중국을 방문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중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북한 측과 다양한 형태의 호혜 협력을 행하는 것을 적극 장려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대북 투자자문회사인 ‘북경화려경제문화교류유한공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대북 진출에 나서고 있다.<sup>25</sup>

대북투자자와 관련한 북·중 양국의 노력은 2005년 들어와서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05년 1월 천하오민 홍콩국제산업발전공사 이사장을 북한 정부의 외자유치 대표로 공식 임명하였다. 3월

<sup>23</sup> 김철, “북한-중국 경제무역 합작 현황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p. 61.

<sup>24</sup> KOTRA, “북한의 외자유치 현황과 전망” (서울: KOTRA, 2006).

<sup>25</sup> 민관영을 통틀어 북한이 유일하게 자문권한을 인정한 회사로서 형식상 민간 기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를 대행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북한 박봉주 총리의 방중 시 북·중 양국은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투자자산을 제도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큰 틀을 확보함으로써 대북투자에 대한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10월에 방북한 후진타오 주석은 김영남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양국의 경제무역 관계 발전이 매우 빠르고 잠재력이 크라며 상호 이익 및 공동 발전 원칙에 입각해 양측 기업들이 여러 형식의 합작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표명하였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무엇보다 2005년 중국의 대북한 ‘도로, 항만, 개항구 일체화 건설’ 지침에 따라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이 제출한 동북3성 진흥계획 24조에는 “북한과의 도로, 항만, 산업지구 일체화 건설을 촉진하고 대외협력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국가는 대외원조를 실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동북지역의 변경세관과 연계되는 교통, 항만, 공항 등 기초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를 배정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중국은 대북투자의 초기 단계에서 컴퓨터, 전기기구, 자전거, 담배 등의 제조업 분야에 우선 진출하였다. 2004년부터는 점차 서비스, 자원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으로 대북투자의 영역을 다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서비스분야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북투자 사례로는 2005년 6월에 개설된 북한의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의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서비스 분야에서 중국은 평양의 백화점 운영을 위해 경영권 확보에 나선 바 있고, 북한 관광산업에 대한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이 대북투자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투자를 집중해 온 분야는 자원개발 부문이다.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의 진전과 동북3성 개발에 필요한 지하자원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의 무연탄, 철광석을 비롯한 다양한 광물자원 개발에 참여해 왔다. 2004년

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는 2006년의 경우 중국의 대북 총투자금액의 70%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패턴에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을 확대하고 재정투자가 증대되면서 대북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sup>26</sup> 중국 국무원은 2009년 7월 “동북3성 노후기지 진흥계획에 관한 추가계획”을 승인하였다.<sup>27</sup> 이러한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에 부응하여 북한도 나진항을 개방하고 나선시를 특별시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8개 도시의 경제특구 지정 및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런 북·중 간 긴밀한 경제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면서 양국은 그동안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나 개발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인프라 개발사업인 원정-나진을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재개하였다. 또한 과거 논의 수준에서 머물던 신압록강대교 건설, 나진항 부두개발 및 압록강변 발전소 공동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투자는 2003년 이전만 하더라도 많아야 겨우 100만 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04년 들어와서 처음으로 1,000만 달러를 상회하였고, 2008년에는 4,123만 달러로 늘어났다. 이와 같이 중국의 대북투자는 대부분 2004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sup>28</sup>

26.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p. 22.

27. 이 계획에서 중국은 대련을 중심으로 좌우 해안도시를 연결하는 “랴오닝 연해경제벨트”와 창춘, 지린, 투먼을 잇는 “창지투 개방선도구” 프로젝트를 국가사업으로 격상시키고, 압록강변을 따라 단둥에서 통화를 잇는 “둥-단 경제벨트”와 훈춘을 거점으로 두만강 유역을 “동북아 물류벨트”로 개발·연계하여 동북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I
II
III
IV
V
VI

표 IV-1 중국의 대북 투자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FDI	1.12	14.23	6.50	11.06	18.40	41.23

자료: 중국 상무부, 2008 Statistical Bulletin of China's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 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75 재인용.

나. 민간부문 남북 경제협력사업

대북투자를 수반하는 민간부문의 남북 경제협력사업(개성공단 제외)은 2010년 8월말 현재 총 62건이 승인되었으나 이 중 7건이 취소되어 55건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은 1994년 11월 정부가 ‘제1차 남북경협활성화 조치’를 발표한 이듬해인 1995년부터 가시화되고, (주)대우의 남포공단 합영사업이 정부로부터 승인(1992.10.5 협력사업자 승인, 1995.5.17 협력사업 승인)을 받음으로써 시작되었다.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은 1998년에 사업 승인이 6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협력사업 승인 건수는 2001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까지 매년 1~2건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에 대한 관심이 1990년대 후반 잠시 고조된 적이 있으나 실질적인 대북투자는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개성공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2004년부터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 협력사업 승인이 다시 증가하였다. 2007년과 비교할

28. 중국이 공식 비준한 대북한 프로젝트는 2008년 1월 말 기준 총 84건(4.4억 달러)으로 이중 북한과 협의된 중국 측의 투자총액은 2.6억 달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OTRA, 『주간뉴스레터』, 2008-14 (2008.6.17).

때 2008년에는 개성공단 인근 지역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늘어났고 사업분야도 제조업 위주에서 물류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2009년 이래 경제협력사업 승인 실적은 단 1건으로 (주)벤처브릿지의 S/W 개발 용역사업만이 승인되었을 따름이다.

●표 IV-2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 승인 현황

연도	1991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승인 (건)	1	2	6	0	2	5	1	2	6	10	4	6	9	1	55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0.8), p. 107.

협력사업 승인업체는 평양과 남포지역을 주요 사업 대상지역으로 삼고 있다. 지역별로는 나진·선봉 1개(이 지역에 진출한 백산실업은 1998년 10월 28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 평양·남포 34개, 개성 9개, 고성 7개, 원산 등 기타지역에 4개 업체가 진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평양 등 북한 내륙에 투자한 민간 업체 중 실제로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은 10여 개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 진행 중인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은 지하자원분야 3건, 서비스분야 1건, IT분야 3건, 제조업분야 2건 등이다. 이 중에서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 생산과 광물자원공사의 흑연광산 개발이 대표적인 협력사업이라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표 IV-3 진행 중인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

분야	업체수	업체명(사업분야)
지하자원	3	서평에너지(무연탄), 태림산업(석재가공), 광물자원공사(흑연광산)
서비스	1	국양해운(인천-남포 정기 해상수송)
IT	3	아사달(디자인콘텐츠), KT(통신 공동연구), 하나비즈닷컴(S/W 개발)
제조업	2	평화자동차(자동차 생산), 나우(박스 생산)

자료: 2009년 통일부 국감 수감자료.

개성공단 이외의 북한 내륙에 진출한 대북 투자기업의 대부분은 북한지역의 전력·통신·물류 등 인프라시설 미비, 북측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내 투자를 통통해 단기간에 이익을 실현한다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자동차의 경우 2008년에 순이익이 발생하여 50만 달러를 국내로 송금(2009.5.26)하였다고 통일부에 보고한 바 있다.

## 2. 분야별 대북투자 및 경협사업 현황

### 가. 자원 개발

#### (1)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중국은 자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하자원은 물론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북한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기업은 북한의 지하자원 중에서 가장 먼저 철광석 개발을 위해 북한에 진출하였다. 이중에서 대

표적인 것은 무산광산 개발로서 중국의 연변천지공사(延邊天地公司), 통화강철집단(通化鋼鐵集團), 오광(五礦)그룹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무산철광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이미 소규모 투자와 인프라 정비를 통해 무산철광으로부터 철광석을 들여온 바 있다. 철광석 개발을 위해 중국은 무산광산 외에도 북한의 덕성, 오룡, 덕현, 용진광산 등에 투자하고 있고, 자철광 생산을 위해 문락평광산을 개발 중이다.

북한 철광석 개발과 함께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 및 갈탄 개발에도 중국은 투자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무연탄 탄광인 룡등탄광을 비롯해 2.8직동청년, 천성청년 및 룡문탄광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룡등탄광 개발을 위해 중국 오광그룹과 북한의 석탄공업성 산하 구장탄광연합기업소는 2005년 10월 합작에 합의하였다. 최근 중국 기업은 북한 새별지구탄광연합기업소 산하 고건원탄광과 룡북청년탄광 개발을 위해 ‘합작 계약’을 체결하였다.<sup>29</sup>

중국은 북한의 금, 동, 몰리브덴, 연·아연 등과 같은 여타 지하자원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금광 개발과 관련하여 2004년 8월 중국 초원산 동국대황금구분유한공사(招遠山東國大黃金股份有限公司)와 북한 대경추간 북한 상농광산에서 채굴한 금을 산둥성 초원시(招遠市)에서 전량 정련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광서우(廣壽)그룹유한공사는 이미 몰리브덴광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중국의 장백초 금광업유한공사와 완샹그룹은 북한의 동광산인 혜산청년광산의 개발을 위해 혜산초금합영회사(惠山招金合營會社)와 혜중광업합영회사를 각각 설립하였다.

<sup>29</sup> 『데일리NK』, 2010년 5월 10일.

I
II
III
IV
V
VI

북한과 중국은 2004년부터 수산자원 개발을 위해 동해안에서 협력하고 있다. 중국 북경종합화학무역공사는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의 어업생산제휴 프로젝트를 통해 동해 북방한계선 이북인 원산항에서 50마일 떨어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권을 확보하였다.<sup>30</sup> 또한 라오닝성 대련해양어업집단(大連海洋漁業集團), 절강성 주산화응원양어업공사(舟山華鷹遠洋漁業公司) 및 주산보타구원양어업공사(舟山普陀區遠洋漁業公司)는 북한 삼태성무역회사와 동해안 어업개발 프로젝트를 체결하고 2005년 8월부터 동해안 다른 지역에서 조업을 시작하였다.<sup>31</sup>

중국은 북한지역의 석유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 노두철 부총리는 방중 시 중국의 쩡페이엔(曾培炎) 경제 및 에너지 담당 부총리와 ‘중·조해상석유공동개발협정’에 서명하였다.<sup>32</sup> 중국의 해양석유 총공사(CNOOC)의 발해만 신석유층 발견 보도(2005.10) 등을 감안할 때 중·조 해상석유 공동개발 지역은 황해이며 투자규모는 5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 북한은 중국 어선에게 원산 앞바다를 2009년까지 5년간 개방하고 입어료 명목으로 어획고의 25%를 전자제품 등 현물로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150톤급 저인망 어선 16척과 냉동선 1척,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된 중국선단이 투입되었다. 『연합뉴스』, 2004년 9월 7일; 『연합뉴스』, 2004년 11월 16일.

31. 계약에 의하면 작업기간은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로 총 60척의 원양어선을 투입하고, 계약기간은 5년으로 2005년 8월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05년 8월 현재 현지 조업어선은 22척, 그중 원양어선은 16척이었다. 『投資朝鮮』, 2005년 8월 17일.

32. 『조선중앙통신』 및 중국 관영 『신화통신』, 2005년 12월.

●표 IV-4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투자) 현황

광종	광산명	소재지	투자금액	추진현황
철	무산	함북 무산군	1억 위안 (172억 원)	· 2004 연변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 100백만 위엔 설비 투자 · 2006.11 통화강철 및 오광그룹과 컨소시엄 구성 50년 채굴권 확보
	덕현	평북 의주군	6억 위안 (1,032억 원)	· 2007.3 홍콩평황투자집단공사와 합작 계약
	응진	황남 응진군	3천만 유로 (516억 원)	· 2008.6 요녕성 서양그룹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으로 『서해합영회사』 설립
	오룡	함북 회령시	3.16억 위안 (543억 원)	· 2006.5 연변대원조철유한공사와 조선금천무역회사 합영 『금대광상개발무역회사』 설립
	문락평	량강 갑산군	1억 위안 (172억 원)	· 2006.4 중국지린수광과 개선무역총회사 합작 계약
	덕성	함남 덕성군	1억 달러 (1,165억 원)	· 2004.3 흑룡강성민족경제개발총회사와 북한 금속공업성 합작투자 합의
무연탄	28직동 청년	평남 순천시	-	· 2005.4 중국 홍콩투자유한공사 및 허계집단국제공정유한공사와 북한 전력공업성 MOU 체결
	천성 청년	평남 은산군	-	상 동
	룡등	평북 구장군	-	· 2005.10 중국 오광그룹과 북한 석탄공업성 구장탄광연합기업소 합작 합의
	룡문	평북 구장군	-	· 2005.10 중국 북경구룡주국제무역공사와 북한 석탄공업성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합작 합의

I  
II  
III  
IV  
V  
VI

광종	광산명	소재지	투자금액	추진현황
갈탄	강안	함북 온성군	-	· 2005.7 중국 심양요신유한공사와 합작 계약
금	보천	량강 보천군	2천만 위안 (344억 원)	· 2006.9 베이핑광업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개발 계약
	수안	황북 수안군	-	· 2007.1 중국지질탐사대와 금강연합기업 소 공동탐사
	선천 (금·은)	평북 선천군	-	· 2006.4 중국 유색광업집단 및 지린하오 룡(昊融)집단공사와 북한 금강총회사 공동개발 MOU 체결
	상농 (금·동)	함남 허천군	-	· 2004.8 초원산동국대황금고빈유한공사 와 조선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간 금 채굴 MOU 체결
동	혜산청 년	량강 혜산시	4.4천만 위안 (756억 원)	· 2005.2 장백초금광업유한공사 4,400만 취엔 투자 합의 · 2008.11 중국원상그룹과 혜산청년광산 공동 『혜중광업합영회사』 설립
	8월	량강 갑산군	1천만 위안 (17억 원)	· 2006.9 충위안광업과 개선무역총회사 공동개발 계약
물리브덴	장진	함남 장진군	240만 유로 (20억 원)	· 2004.5 단동위민국제상무유한책임공사 와 조선대양총회사 공동 『대양-중당국 제합영집단공사』 설립
	룡흥	평남 성천군	443만 달러 (51억 원)	· 2007.9 저장성 광서우집단공사와 대외 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공동 『대광합영회 사』 설립
연·아연	은파	황북 은파군	3.5억 위안 (602억 원)	· 2006.3 청해성 서부광업유한책임공사와 채취공업성 은파광업소 합작합의서 체결

자료: 2009년 통일부 국감 수감자료; 『문화일보』, 2009년 10월 8일.

## (2) 남한의 대북 자원개발 및 경공업협력사업

한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는 매우 저조한 편이다. 광업진흥공사를 비롯하여 민간기업 등이 추진 중인 북한 자원개발사업은 투자 5건, 계획 4건, 협의 5건 등 총 14건이다.<sup>33</sup> 광업진흥공사는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합작으로 정춘흑연광산개발을 위해 60억 원을 투자하였고, 민간기업으로는 (주)태림산업이 2006년 4월 북한 개선총회사와 합영계약을 체결하고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를 설립해 화강석 개발 및 석재 가공공장을 운영 중이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에 대해 합작투자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 합작 형태의 투자 요건에 따라 북한은 남한 투자자의 광산개발 경영 참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춘흑연광산에 투자한 광물진흥공사는 정춘광산의 경영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반면 중국의 경우 합영 형태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춘 흑연광산에서 생산된 흑연의 국내 반입도 중단된 바 있다.

표 IV-5 한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 현황

업체(투자방식)	복측 대상자	추진내용
광업진흥공사 (합작)	삼천리총회사	· 정춘흑연광산개발 · 60억 원 투자, 2007년 북한산 흑연 550톤 반입

<sup>33</sup>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신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공동세미나, 2007.11.23).

업체(투자방식)	복측 대상자	추진내용
태립산업 (합영)	개성총회사	· 룡강석산(화강석) 개발, 장풍석산 개발 · 개성석재가공공장, 판석공장 운영 · 아리랑태립석재합영회사 설립 · 39억 원 투자(60억 원 추가 투자 계획)
아천글로벌 (합작)	신진무역총회사 조선진영무역회사	· 개성 및 해주 석산(화강석) 개발 · 철광석·내화벽돌 공장 건설 추진계획 · 2008.3.10 해주 원석 반입, 250억 원 투자예정
나우코포레이션 (합작)	민경련을 통한 대상자 다변화	· 무연탄·흑연·아연 등 수입, 텅스텐·선철 등 추가 예정 · 2007년 북한 광물 12만 7천 톤 수입
서평에너지 (합작)	명지총회사	· 남포에 석탄전용 대안부두 건설 중 · 천성석탄합작회사 설립, 20억 원 투자

자료: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신남북경협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북한연구학회 공동세미나, 2007.11.23).

한편, 남북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2005.7.9~12)에서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한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시켜 나가고자 하였다. 이 원칙에 입각해 제12차 남북 경추위(2006.6.3~6)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따라 합의서는 발효되지 못하였다. 이후 남북 경추위 제13차 회의(2007.4.18~22)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수정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남북한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이 합의에 따라 2007년 7월 25일부터 2008년 3월 31일까지 총 26항 차에 걸쳐 8,000만 달러 상당의 경공업 원자재를 북한에 차관방식으로 제공하였다. 북한에 제공된 원자재는 섬유 원자재(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등 39개 품목 2,583만 달러), 신발 원자재(고무혼합물 등 48개

품목 4,293만 달러), 비누 원자재(Soap Chip 등 7개 품목 1,124만 달러) 등이다.

우리 측은 제공된 원자재 사용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을 위해 북한 경공업 제품 생산공장을 4회 방문(1차: 2007.8.7~11, 2차: 10.23~27, 3차: 12.3~8, 4차: 2008.1.21~26)하였다. 북한 경공업 전문가의 전문 확대를 위해 남북한 전문가가 함께 해외 방문(2008.1.29~2.4)을 실시하였다.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을 위해 2007년 북한 단천지역의 3개 광산(검덕, 대흥, 룡양)에 대한 3차례(2007년 7월, 10월, 12월) 현지 공동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 1~5월까지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15개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업타당성 평가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단천 지역 광산개발에 대한 투자는 경제성은 있으나 개발에 필요한 철도, 항만, 도로 등이 대부분 노후화되어 이들 기반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제공된 원자재 차관에 대해 2007년도 상환분인 240만 달러(8,000만 달러의 3%)를 2차례(2007.12.24, 2008.1.4)에 걸쳐 광물(아연괴 1,005톤)로 상환하였다.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협력사업으로 추진한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사실 경공업협력사업은 남북협력 사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북 지원의 성격이 더욱 강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VI

## 나. 제조업 분야

### (1)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중국은 제조업 분야에 대한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에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대북투자를 완료해 조업 중인 분야는 컴퓨터, 건축 자재(스레드), 가구, 자전거, 전기기구, 사료첨가제, 담배 등이다. 7.1 조치 이후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북한의 수입대체정책이 맞물리는 상황에서 중국기업의 대북 진출은 북한의 내수시장을 일정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이들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중국기업의 성공적인 대북투자는 모두 중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함께 경영하는 합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북한 내 유일한 PC 생산업체인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晨曦熊貓計算機有限公司)는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공사(南京熊貓電子集團有限公司)와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가 50 대 50 합자 설립한 북·중 합작기업으로 2002년 9월부터 컴퓨터를 생산 중이다.<sup>34</sup>

이밖에도 주목되는 북·중 합영회사인 조선영초건제품합영회사(중국과 북한 50 대 50 합영, 2004년 5월 31일 조업), 영광가구합영회사(2004년 6월 조업, 2006년 6월 평양시 형제산구역에 영광가구종합센터 개업),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2005년 10월 6일 조업),<sup>35</sup> 평진자전

---

34. 아침-팬더컴퓨터합영회사는 총투자액 130만 달러로 북·중 양측이 각각 50%씩 투자했다. 남우석, “북·중 합작 컴퓨터 생산회사 설립,” 『KOTRA 북한경제속보』 (2002.6.7); 이 회사는 본체 연 13.5만대, 모니터 연 10만대의 조립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조선신보』, 2003년 3월 15일; 북한 계간지 『Foreign Trade of the DPRK』, 2003년 8월에 의하면 팬티엄 4급 등 3종의 컴퓨터를 생산하고 있다.

35. 카드식 전산전력계를 생산하는 평양전기기구합영회사는 2005년 10월 6일 조업하였다. “전력증산으로 인민경제 흥하게,” 『조선신보』, 2007년 3월 2일.

거합영회사(중국과 북한 51대 49 합영, 중국 측 65만 달러의 설비·재료·현금 투입, 상표 모란봉, 연간 생산능력 30만대, 2005년 10월 7일 조업),<sup>36</sup> 조선은풍합영회사(중국과 북한 55대 45 합영, 중국 측 80만 달러의 설비·원자재·기술로 출자, 합영기간 10년, 2003년 계약체결, 2004년 4월 북한 정부 비준, 2005년 11월 조업, 가축·가금·수산양식 사료 첨가제 생산),<sup>37</sup> 평양아명조명합영회사(2008년 2월 27일 조업),<sup>38</sup> 평양백산연초유한책임(중국과 북한 51대 49 합영)이 조업 중이다.

한편 대북투자 협의 또는 투자가 완료되었으나 사정에 의해 생산에 착수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sup>39</sup> 허난성(河南省) 일타집단(一拖集團)유한공사 대표단이 2003년 11월 북한의 조선금성트랙터공장을 방문, 트랙터 조립 등의 영역에서 합작생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였지만 실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린시 대성(大成)경제무역유한공사와 북한 직업총동맹 산하 문수(文水)회사는 극세아연분말 생산에 합의하고 중국 측이 투자를 완료하였으나 판로문제로 생산이 미루어졌다. 천진등탑도료유한공사(天津燈塔塗料股份有限公司)와 평양지성명심합자회사는 페인트 생산과 관련해 협의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림경제무역유한공사와 조선두만강무역회사는 광천수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다.

36- 『길림신문』, 2005년 10월 29일.

37- 『投資朝鮮』, 2006년 5월 9일, <<http://www.idprkorea.com>>.

38- 『조선중앙통신』, 2008년 2월 27일.

39-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60~61.

I
II
III
IV
V
VI

표 IV-6 중국기업의 제조업 분야 투자 현황

합영회사명	설립 년도	투자당사자	방식	생산품
아침판다콤퓨터 합영회사	2002.9	중국: 남경팬더전자집단유한회사 북한: 전자제품개발회사 (전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	합영 (50:50)	컴퓨터
조선영초건재품 합영회사	2004.5	중국: 吉林省紡織輸出公司, 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건재무역 회사	합영 (50:50)	석면스레트 (돌솥 지붕판)
영광가구 합영회사	2004.6	중국: 길림성중상무역대외수출입 총회사 북한: 건설건재공업성 대외경제 협조국	합영	각종 고급가구
평양전기기구 합영회사	2005.10	중국: 베이징복성효정전자과학기술 주식회사 북한: 카드식적산전력계조립공장	합영	카드식적 산전력계
평진자전거 합영회사	2005.10	중국: 천진디지털무역유한책임공사 북한: 대외경제합작촉진위원회	합영 (51:49)	자전거
조선은풍 합영회사	2006.4	중국: 요령화풍목업주식유한공사 북한: 조선은파산무역회사	합영 (55:45)	사료첨가제 (복합영양 첨가제)
평양아명조명 합작회사	2008.3	중국: 상해아명전등공장유한공사 북한: 평양조명기구공장	합영	컴팩트 등 (절전형 등 생산)
평양백산연초 유한책임회사	2008.4	중국: 길림성담배공업유한공사 북한: 조선연초수출입상사	합영 (51:49)	담배생산 (평양, 백산)

자료: 배종렬, “북한의 외국인투자 실태와 평가-EU와 중국 기업의 대북 진출을 중심으로,” 『수은북한경제』, 2008년 가을호 (한국수출입은행, 2008), pp. 59~61;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61.

## (2) 개성공단사업

### (가) 추진 현황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개성공단사업은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간의 합의(총 6,612만m<sup>2</sup> 개발합의서 체결)로 시작되었다. 2003년 6월 30일 1단계 330만m<sup>2</sup> 건설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하였다. 개성공단 1단계 개발면적 중 생산시설용지는 전체 용지의 2/3 수준인 219만m<sup>2</sup>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부는 2002년 1월 27일 현대와 한국토지공사를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협력사업자로 승인하고, 2004년 4월 23일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 5월 개성공단 1단계 시범단지(93,000m<sup>2</sup>) 분양을 공고하고 이어 6월에 15개 업체와 시범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한 기업인 (주)리빙아트는 12월 15일 개성공단 첫 제품을 생산하였다. 2005년 8월 개성공단 1단계 본단지 16만 9천m<sup>2</sup>에 대한 분양 공고가 난 후 12월부터 본단지 1차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23개 업체 및 한국산업단지공단)들이 공장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들어와서 개성공단 본단지 2차 175만m<sup>2</sup> 분양 공고(4.30) 후 2차 입주계약 체결(183개 업체)이 이루어졌다. 개성공단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2006년 6월 완료되었고, 2007년 10월에는 용수시설, 폐수처리시설, 폐기물매립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공하고 1단계 기반시설 준공식(10.6) 거행하였다. 2007년 말에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출범(12.31)하여 개성공단 진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개성공단에는 2008년 7월 4일 현재 북한 근로자 3만 명이 근무하게 되었고, 11월 30일에는 총생산액 누계 5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I
II
III
IV
V
VI

표 N-7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현황

구 분	현 황
부지조성	1단계 330만㎡ 부지조성 공사 완료(2006.7)
단지 내 시설	도로, 상하수도, 교량, 조경 등 단지 내 시설 준공(2007.6)
기반시설 (2007.10 준공)	용수시설(3만 톤/일): 용수는 17km 떨어진 월고저수지에서 정수, 공급 폐수처리시설(1.5만 톤/일) 폐기물처리시설: 매립시설 61,000㎡, 소각시설(12톤/일)은 2008.6 준공
전력·통신	전력: 10만KW를 남측에서 송전방식으로 공급(2007.5) 통신: 남북 직접연결 통신선 개통(2005.12), 현재 1,300회선 사용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됨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에 있어서도 우려가 증폭되고 있었다.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군사분계선 육로통행 제한조치(이하 ‘12.1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어 2009년 3월에는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3차에 걸쳐 개성공단 통행을 차단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 직원 1명을 억류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4월에는 남북당국 간 접촉에서 개성공단의 모든 특혜를 재검토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5월에는 개성공단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였다.<sup>40</sup>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의 긴장국면 하에서도 개성공단사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북한과 개성에서 3차례 실무

40.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개성공단 입주업체 중 한국산업단지공단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했던 ‘스킨넷’사는 개성공단에서 시설을 철수(2009.6.16)하고 기업을 해산(2009.6.30)하였다.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와 함께 현대아산의 현정은 회장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개성공단 문제의 조속 해결을 요청하였다. 이런 우리의 노력에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을 석방(2009.8.13)하고, ‘12.1 조치’의 해제를 통보(8.20)하였다.

2008년 말부터 진행된 남북한 갈등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고 수위로 높아졌다. 우리 정부는 5월에 천안함 사건 보고서를 발표하고 곧 이어 남북교역을 사실상 중단하는 ‘5.24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 조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사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개성공단 관련 신규사업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 (나) 입주기업 및 생산현황

개성공단은 2007년 12월 말 기반시설 준공 및 분양 등 1단계 개발이 완료됨으로써 본격 운영단계에 진입하였다. 개성공단에는 2010년 7월 말 현재 121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을 가동 중에 있다. 입주업체의 업종은 섬유가 70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기계·금속 22개, 전기전자 13개, 화학 7개, 식품 3개, 종이·목재 3개, 비금속광물 1개 등이다.

●표 IV-8 개성공단의 입주기업 현황 (2010.7 말 현재)

분야	섬유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합계
기업수	70	9	22	13	3	3	1	121
비율(%)	57.9	7.4	18.2	10.7	2.5	2.5	0.8	100.0

자료: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I
II
III
IV
V
VI

2004년 11월 (주)리빙아트가 55명의 북한 근로자를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8년 2월 북한 근로자가 3만 명을 넘어섰고,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에 힘입어 연말에는 개성공단 근무자가 4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2009년 12월 말 현재 개성공단에는 총 43,496명(북측 근로자 42,561명, 남측 근로자 935명)이 근무하고 있다. 남북한 대치국면 속에서도 개성공단 근무자의 수는 2010년 8월말 현재 총 45,148명(북측 근로자 44,346명, 남측 근로자 802명)으로 지난 연말보다 늘어났다.

표 IV-9 개성공단의 근로자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북측 근로자	7,621	11,189	22,538	38,931	42,561	44,346
남측 근로자	490	791	785	1,055	935	802
합계 (명)	8,111	11,980	23,323	39,986	43,496	45,148

자료: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사업은 양적 확대에 따라 2010년 8월 말까지 누적 총생산액 9억 9,436만 달러를 달성하였다. 개성공단의 누적 총생산액은 2007년 1월말 1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8년 2월 말에는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들어와서 생산액 증가 추이가 둔화되면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2억 5,647만 달러를 생산하는데 그쳤다.

● 표 IV-10 개성공단의 생산액과 수출액

(단위: 개, 만 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8
가동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7	21,303
수출액	87	1,983	3,967	3,585	-	-

자료: 통일부, 『2009 통일백서』 (통일부, 2010), p. 89: 통일부 홈페이지,  
 <<http://www.unikorea.go.kr>>.

개성공단에는 섬유업종의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결과 개성공단 생산액에서 섬유업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개성공단 생산액 누계(2005~2010.6)에서 섬유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은 52.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기계금속 18.9%, 전기전자 17.7%, 화학 10.3%가 차지하고 있다. 불과 수 개 기업이 진출한 식품, 종이목재, 비금속광물 업종의 생산액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 표 IV-11 개성공단의 업종별 생산 현황 (2005~2010.6 누계)

(단위: 천 달러, %)

구분	섬유	화학	기계 금속	전기 전자	식품	종이 목재	비금속 광물	합계
생산액	492,120	97,087	178,274	167,014	4,359	2,114	72	941,040
비 중	52.3	10.3	18.9	17.7	0.5	0.2	0.0	100.0

자료: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수출액은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중국,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2008년에 들어와서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다. 2009년도에도 2008년에 이어 수출액은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 생산제품 중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주력 품목은 기계금속이고, 그 다음이 화학제품이다. 개성공단 생산액 비중이 가장 높은 섬유제품은 해외로 전혀 수출되지 않는 실정이다.

표 IV-12 개성공단의 업종별 수출 현황 (2005~2010.6 누계)

(단위: 천 달러, %)

구분	화학	기계금속	전기전자	식품	합계
수출액	35,545	92,741	15,452	108	143,846
비 중	24.7	64.5	10.7	0.1	100.0

자료: 현대아산, <<http://www.hyundai-asan.com>>.

### (3) 반출입

개성공단이 본격 가동된 2005년 이후 개성공단사업 관련 남북한 반출입 규모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입의 경우 2007년 이후 급증추세를 나타낸 반면, 반출의 경우 2008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2009년에 들어와서 정체되었다. 2009년 개성공단사업 관련 반출입 규모는 총 9억 4,060만 달러(반출 5억 2,260만 달러, 반입 4억 1,790만 달러)이다.

2010년 1~8월까지 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 규모는 9억 5,050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 반출입 규모인 9억 4,060만 달러를 넘어섰다. 남북한 긴장이 고조되고,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 조치'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통한 반출입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표 IV-13 개성공단의 반출입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1~8
반출	41.6	156.9	222.9	338.6	518.3	522.6	497.0
반입	0.1	19.8	75.9	101.2	290.1	417.9	453.5
반출입	41.7	176.7	298.8	439.8	808.4	940.6	950.5
수지	41.6	137.1	146.9	237.4	228.2	104.7	43.5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0.8), p. 73.

최근 개성공단사업에 따른 원부자재의 반출과 생산품 반입의 증가는 남북교역을 견인하고 있다.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에서 개성공단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져 2004년 상업적 거래에서의 비중이 9.6%에서 2009년에는 57.3%로 높아졌다. 개성공단사업은 사실상 남북경협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개성공단에서 가동 중인 생산업체의 주요 업종은 섬유, 기계금속, 전기전자 등이다. 이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반출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해 국내에 들여오고 있다. 2009년 최대 반출품목은 반도체였고, 그 뒤를 이어 인조단섬유직물, 면직물, 무선통신기기, 섬유·화학기계 순으로 반출되었다.<sup>41</sup> 2010년 상반기 반출 상위 5개 품목은 인조단섬유직물, 반도체, 면직물, 전선, 가구부품으로 나타났다.

반입 상위 5개 품목의 경우 2009년과 2010년 상반기에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으나 품목 구성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입 상위 3개 품목은 의류, 무선통신기기, 신발의 순으로 2009년과 2010년 상반기

<sup>41</sup>-한재완, “2010년 상반기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 p. 20.



기에 동일하였다. 4위와 5위는 전선과 기타 섬유제품으로 2009년에는 기타 섬유제품이 4위, 2010년 상반기에는 전선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 다. 유통·서비스·관광 분야

### (1) 중국기업의 대북 진출

중국은 2004년부터 유통, 운수 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북한 진출을 추진해 왔다.<sup>42</sup> 그 대표적 사례인 평양 보통강공동교류시장(조·중평양건축장식재료시장,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은 2004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정식 개장은 2005년 6월에 이루어졌다.<sup>43</sup>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은 북한 계획경제의 정상화에 필요한 수입 원자재 및 제품들을 북한의 국내 기관·기업소에 도매 및 소매할 목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설립한 수입생산재 유통 종합시장이다. 이 시장은 단둥시 대외경제무역국과 단둥무역촉진회의 노력으로 대련의 요령태성 국제무역유한회사, 단둥환구실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중국의 4개사와 북한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가 100만 달러를 투자해 공동으로 건설하였다.

북·중 간에는 운송 서비스 분야에 대한 합영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04년 6월 원저우 낙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樂清盛金快速汽

42. 『東方早報』, 2005年 8月 22日.

43. 이 시장에서는 건축자재, 강재, 도색재, 농기계, 수지제품, 고무제품, 비료, 기계부속품 등 각종 수입 원자재·기계부속품·공업제품을 비롯하여 양변기 등 일부 생활소비품이 판매되고 있다. 조선무역촉진위원회의 계약서 보증을 바탕으로 중국 7개성에서 온 4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보통강공동교류시장에서는 현금, 은행구좌를 이용한 결제, 물자 대 물자결제 등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흑룡강신문』, 2004년 11월 29일; 『길림신문』, 2004년 12월 30일; 『조선신보』, 2004년 10월 26일; 『조선중앙통신』, 2005년 10월 26일.

車服務有限公司)와 조선올림운수합영회사는 합작으로 북·중 간 국제 여객버스 운행을 위해 7억 위안(약 8,500만 달러)을 운송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철도운송을 위해서 중국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선양철도국, 단둥철도역 단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는 북한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와 2005년부터 협의 중에 있다.

중국 절강성 온주 상인들은 평양 제1백화점에 대한 진출을 고려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온주상인들은 2004년 평양 제1백화점의 경영권을 획득하였으나 북한과의 의견 마찰로 투자는 무산되었다.<sup>44</sup> 이후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는 북한과 2005년에 평양 제1백화점에 절강상품판매시장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정식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투자실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대북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45</sup>

44. 중국 온주상인들은 2004년 평양 제1백화점의 10년간 경영권을 획득(인민폐 5,000만 위안, 약 600만 달러 투자, 수입관세·소득세 5% 부과의 특혜), 절강성의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려 했으나 심양 중육집단(中旭集團)의 온주상인 증창표 회장은 중국인 종업원 채용규제, 현지의 낮은 구매력 등으로 투자를 포기하였다.

45. 2005년 5월 절강성의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와 북한 조선철명무역회사는 생활잡화와 의류 등을 공동 판매하는 절상상품판매시장(평양 제1백화점 3개층 총면적 15,000평방미터)의 개설에 상호 합의하였다. 2006년 4월에 정식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의 부총경리인 로운회가 평양 제1백화점의 총경리를 맡고 평양 제1백화점 매장 4개층 36,000평방미터 가운데 우선 1층 매장 1만 평방미터를 임대하여 소형점포 1,000여개를 온주상인들에게 분양한다는 것이었다. 『흑룡강신문』, 2005년 9월 10일; 『흑룡강신문』, 2006년 5월 1일;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한국산업은행, 2007), p. 101.

I
II
III
IV
V
VI

표 IV-14 중국의 대북 운송·서비스 분야 진출 현황

분야	중국 측 투자(관심)기업	주요 내용	비고
물자교류시장	요령태성국제무역유한회사, 단둥환구산업발전수출입유한회사 등 4개사	북한 무역성 산하 중앙수출입물자교류총회사와 보통강수입물자교류시장을 건설, 2005년 6월 정식 개장	운영
국제여객운송	원저우 악청성금쾌속기차복무유한공사 (樂清盛金快速汽車服務有限公司)	2004년 6월 조선울림운수합영회사와 합작으로 북·중 간 국제여객버스운행을 위해 7억 위안(약 8,500만 달러)을 투자하기로 합의	운영
철도운송	홍콩국제산업발전유한공사, 선양철도국, 단둥철도역 단둥철도국제연합운수총공사	2005년부터 북한 대동강계산기합영회사와 철도운송 서비스(투자규모 3,000만 위안) 협의	협의
백화점 운영	중수그룹(中旭集團)	2004년 평양 제1백화점의 10년간 경영권을 획득	중단
	절강성 동양국호무역유한회사	2005년 5월 조선철명무역회사와 평양 제1백화점에 절강상품판매시장 개설에 합의, 2006년 4월 정식계약 체결	중단

자료: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62~64.

최근 북한과 중국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06년 단행한 북한단체관광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2010년 4월부터 재개하기로 하였다.<sup>46</sup>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은 실제로 2010년 4월 12일부터 시작되어 중국 측 참관단과 관광단이 12일,

13일 양일간 항공편과 열차편으로 평양에 도착하였다.<sup>47</sup> 중국 측은 북한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북한관광을 위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전용열차를 운행하기로 하였다.<sup>48</sup> 또한 중국은 중국인의 북한 관광 통행 편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비자 및 통행증 발급 업무를 시작하였다.<sup>49</sup>

## (2) 금강산관광사업

금강산관광사업은 1998년 11월 해로관광이 시작되면서 2000년까지 관광객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해로관광에 따른 불편으로 금강산관광객은 2001년부터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2000년 20만 명을 넘어섰던 관광객 수는 2001년~2003년 기간에는 매년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2003년 9월 육로관광이 시작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안정적인 성

46. 북한과 중국은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시 ‘중국관광객의 북한 관광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6년부터 도박 성행을 이유로 전면금지하였던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을 2010년 4월12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동북지역 관광업 발전계획’을 발표(2010.3.18)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3월 18일.

47. 『조선중앙방송』, 2010년 4월 16일; 『조선중앙통신』, 2010년 4월 16일.

48. 연변조선족자치주는 훈춘에서 북한 나진과 평양, 판문점에 이르는 새로운 관광코스 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12일; 투먼(圖們)시 외시관광국 리창신(李昌勛) 국장은 북한 당국과 합의아래 2개 관광노선(여기에는 투먼-남양 간 도보여행이 포함)에서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하였다. 『東亞經貿新聞』, 2010년 4월 9일; 『연합뉴스』, 2010년 4월 9일; 저장(浙江)성 중국여행사는 4월 20일 첫 운행에 나서는 북한 관광 전용열차의 예약 완료를 소개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3월 21일.

49. 북한 조선관광사 엔지대표처는 2010년 4월 13일부터 엔지에서 비자 발급을 개시하였다. 『길림일보』, 2010년 4월 26일;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창바이(長白)조선족자치현은 2010년 5월 1일부터 북한 변경관광을 위한 통행증 발급을 시작하였다. 『길림신문』, 2010년 5월 9일; 『연합뉴스』, 2010년 5월 9일.

I
II
III
IV
V
VI

장기반이 마련되었다. 2004년에 들어와서 육로를 통한 관광상품의 다양화(당일, 1박2일, 2박3일 관광 등), 단체 관광객 증가 및 숙박시설 확충 등으로 관광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6월 7일 금강산관광객은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금강산관광사업은 2005년 8월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해 왔으나 김윤규 전 현대아산 부회장의 퇴출로 불거진 북측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제한조치로 9월부터 금강산관광은 하루 600명으로 축소·운영되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리종혁 아시아태평양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이 개성에서 면담한 뒤 정상화에 합의(11.11)함으로써 금강산관광사업은 70여일만인 11월 18일부터 다시 정상화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여파로 2006년 관광객은 2005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그러나 ‘2.13 합의’ 이후 관광객은 다시 증가하여 2008년 상반기까지 금강산관광사업은 양적·질적으로 활성화되었다.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은 2005년 298,247명, 2006년 234,446명으로 집계되었다. 2007년에 34만5,006명의 관광객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사업이 시작된 1998년 이후 한 해 최대 관광객 기록을 세웠다.

관광객 증가 추세는 2008년에도 이어졌다. 3월 17일부터는 1일 20대 규모의 금강산 승용차 관광이 실시되었고, (주)에머슨 퍼시픽은 금강산 관광지구내에 골프장을 5월 28일 정식 개장하였다. 그러나 7월 11일 새벽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은 7월 12일부터 중단되어 아직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 2008년에 19만 9,996명이 금강산을 관광하였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남북경협을 북한의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금강산관광사업은 남북한 3대 협력사업의 하나로서 상징적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접촉이 확대되어야 하지만 금강산 관광사업은 태생적으로 접촉의 확대가 제한된 남북한 협력사업이다. 비록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 내에서 진행되는 경험사업이지만 우리 관광객이 제한된 지역에서 북측 안내원만 상대하는 사실상 북측 지역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북한은 금강산관광사업을 외화수입의 창구로서 활용한 것이다.

## 라. 인프라 개발

### (1) 중국의 대북 인프라 개발

최근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에 대한 중국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북한 내 인프라 개발은 2003년 11월 중국 지린성 훈춘시가 “훈춘 라선 로항구 일체화(路港區一體化)” 계획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업은 나진항 개발과 훈춘-라선간 도로 연결 및 확장 사업이다. 이 사업은 북·중 양국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 의해 추진된 바 있다.<sup>50</sup>

<sup>50</sup>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는 중국 훈춘시 동림경제무역유한공사(東林經貿有限公司)와 훈춘 변경경제협력구 보세유한공사(琿春邊境經濟合作區保稅有限公司)가 북한 나선시 인민위원회 경제협력회사와 50대 50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다. 이 회사에 북한 측은 항만과 도로의 사용권을, 중국 측은 3,000만유로의 자금, 설비, 건축재료를 투자하기로 하였다.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주요 업무내용은 중계화물취급, 대리수송, 보세가공구 및 관광시설 개발·경영 등이다. 이 회사의 구체적 개발계획은 2006년 5월부터(2006년 인민폐 2.4억 위안 투자계획) 원정-라진항간 도로(중국 표준2급 도로기준) 건설을 시작으로 라진항 3호부두 개조, 5만km<sup>2</sup>의 공업단지와 보세가공구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콩강신문』, 2005년 9월 21일; 『연변일보』, 2005년 9월 15일 및 2006년 2월 27일; 『길림신문』, 2006년 2월 28일 및 2006년 3월 25일.

훈춘-라선간 도로 연결 및 라진항 개발을 위해 2003년 12월부터 북·중 지방정부간 교섭 시작, 2004년 9월 기본합의에 도달, 2005년 9월 협정 체결, 2006년 1월 북한 중앙경제협력관리국의 허가를 얻었다. 북한은 2006년 2월에 설립된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에 라진항 제3호 부두 5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고 제3호 부두를 확장 건설하여 그 부지에 보세가공구와 공업지구를 건설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제4호 부두 신설 및 50년간 사용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라진-원정간 비포장 도로를 왕복 2차선 직선도로(48km)로 개량 건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라선국제물류합영회사의 라진항 개발사업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였고 원정-라진항간 도로공사 착공은 수차례 연기되었다.

동북지역의 물류 운송을 위해 동해로의 출구를 필요로 하는 중국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라선지역 및 인접 중국 지역을 연계 개발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장춘-훈춘 고속도로의 개통과 연계하여 권하-원정 다리 보수 및 원정-라선간 도로 현대화를 추진 중이다.

중국 다롄창리그룹(大連創立集團)은 2009년 10월에 북한 나진항의 1호 부두 개발권을 획득하고 부두의 독점적 이용의 대가로 훈춘-라진항간 도로(93km)를 건설할 예정이다.<sup>51</sup> 라진항의 배호철 항장은 2010년 5월 19일 훈춘(琿春)시를 방문, 강호권 훈춘시장과 나진항 개발과 관련한 경제협력을 논의하였다.<sup>52</sup> 2010년 3월 15일 북한 라선특별시 인민위원회와 중국 훈춘시 정부가 착공식을 거행한 권하-원정

<sup>51</sup> 창리그룹은 10년 동안 나진항 1호 부두와 2·3호 정박시설 보수 및 확장 등의 독점적 개발권 획득, 부두개발에 2,600만 위안을 투자하였다. KOTRA, “최근 북-중 경제교류 동향,” 『북한경제속보』 (2010.6.17).

<sup>52</sup> 『연합뉴스』, 2010년 5월 21일.

간 다리(두만강대교) 보수공사는 6월 1일 완료돼 개통되었다.<sup>53</sup>

이밖에도 2010년 들어와서 북·중 간에는 양국 인프라 개발협력을 위한 각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는 북한과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에 합의하고 4월부터 보수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sup>54</sup> 룡징(龍井)시는 북한 청진과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기로 하는 등 동해 진출을 위한 국제물류통로의 개척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sup>55</sup>

북한과 중국은 신압록강대교 건설을 비롯한 신의주 및 인근지역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북한 방문 시 양국은 “중국-북한 경제기술 합작 협정” 체결을 통해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하고 2010년 2월 단둥시에서 정식으로 건설협의를 체결하였다.<sup>56</sup> 신압록강대교는 10월에 착공해 3년 내에 완공될 예정이다.<sup>57</sup>

한편 중국 단둥의 압록강경제투자자문회사는 북한 신의주 일대의 경제특구 건설에 참여한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2009년 12월 북한 정부는 단둥압록강경제투자자문회사와 북한의 조선용흥경제연합회

53. 이미 완료된 중국 측 구간을 제외한 북한 측 구간에 대한 보수공사로 공사 비용 360만위안은 훈춘시가 전액 부담한다. 김상훈,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82; 중국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훈춘) 취안허(圈河)통상구와 북한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 보수공사가 완료는 『연변일보』, 2010년 6월 3일; 『연합뉴스』, 2010년 6월 3일 인용 보도.

54. 『연합뉴스』, 2010년 1월 17일.

55. 『연합뉴스』, 2010년 4월 9일; 『長春日報』, 2010年 4月 9日 인용 보도.

56. 신압록강대교(총길이 6km, 넓이 33m 규모로 양방향 통행 가능)의 건설비는 총 17억 위안으로 예상, 중국 측이 모든 투자와 건설공사를 책임지고 북한은 이용 시 통행비를 부담한다. KOTRA, “최근 북-중 경제교류 동향”.

57. 『연합뉴스』, 2010년 2월 25일; 전인대 대표인 자오렌성(趙連生) 단둥시장도 2010년 10월 착공을 언급하였다. 『차이나데일리』, 2010년 3월 7일.

I
II
III
IV
V
VI

가 공동으로 신의주 국제경제합작구를 개발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북한은 1단계로 위화도와 황금평 지역 개발을 추진하고 이 프로젝트가 종결된 후 단동압록강경제투자자문회사가 신의주의 “국제물류 비즈니스 단지” 건설을 책임진다는 계획이다.<sup>58</sup> 북한이 위화도와 황금평을 자유무역지구로 개발하기 위해 중국의 2개 기업에 각각 50년 임대 형식으로 개발권을 부여했다는 보도도 있다.<sup>59</sup>

북·중 양국은 압록강 유역에 수력발전소를 공동 건설하기로 하였다. 중국 요녕성 격림사투자유한공사(格林斯投資有限公司)가 4,500만 달러를 투자(총투자액 인민폐 4억 위안)해 문악발전소(설비용량 4.2만kW, 년 발전량 1억6천만kWh)를 건설하고 투자금액은 전력으로 상환받는 북·중 합작발전소 건설 체결식(2006.5.14)이 중국 장춘에서 이루어졌다.<sup>60</sup> 이에 앞서 북·중수력발전공사 제48차이사회(1995.12.1)에서 립토(중국명 망강루)발전소는 중국 측이, 문악(중국명 장천)발전소는 북한 측이 건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중국 지린성(吉林省) 지안시(集安市)는 합작으로 압록강 상류인 립토와 문악 등 2개의 수력발전소 건설 착공식(2010.3.31)을 진행하였다.<sup>61</sup>

58. 단동압록강경제투자자문회사 책임자 강만발(姜万发)은 “국제물류 비즈니스 단지”를 하이테크 산업원구, 국제무역구, 국제회의센터 등과 같은 고급 서비스산업 중심의 9개 기능지역으로 구성한다는 초보적인 구상을 밝혔다. KOTRA, “최근 북-중 경제교류 동향”.

59. 『연합뉴스』, 2010년 2월 23일.

60. 『길림신문』, 2006년 5월 16일; 『투자조선』, 2006년 5월 25일, <<http://www.idprkorea.com>>.

61. 『교도통신』, 2010년 4월 1일.

표 IV-15 중국의 대북 SOC개발 분야 투자 현황

분야	주요 내용
나선지역 개발	2009.10 다렌창리그룹(大連創立集團)은 나진항 1호 부두 개발권 획득, 대가로 훈춘-리진 도로 건설 예정, 부두개발에 2,600만 위엔 투자
	2010.6 권하-원정간 다리(두만강대교) 보수공사 완료·개통
	투먼(圖們)시는 투먼-청진항 구간 철도 보수에 합의, 2010년 4월부터 보수 예정
신의주지역 개발	2010.2 신압록강대교 건설협약서 체결, 10월 착공 예정
	2009.12 단동압록강경제투자자문회사와 북한 조선용흥경제연합회는 신의주 국제경제합작구 개발에 동의
발전소 건설	2006.5 오녕성 格林斯投資有限公司는 문악발전소(중국 4,500만 달러 투자) 건설 체결, 2010.3 착공식 진행

자료: 본문 참조.

## (2)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한은 2002년 9월 18일 남북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경의선 및 동해선 연결공사 착공식을 공동으로 거행하였다. 도로의 경우 경의선·동해선 모두 연결구간 공사가 2004년 11월 말 완료되어 인원·물자·차량의 왕래가 이루어졌다.

철도의 경우 남북은 제9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2004.6.5) 및 제10차 경추위(2005.7.12)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005년 개통을 목표로 연결공사를 진행하였다. 10월 하순 철도시험운행 및 도로개통식을 개최한 후 철도를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었다. 2005년 12월말 현재 경의선 구간(문산-개성, 27.3km)과 동해선 구간(제진-금강산, 25.5km)의 남북 간 연결철도 궤도 부설공사가 완료되어 열차운행을 위한 기본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I

II

III

IV

V

VI

표 IV-16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개요 (2004.12 현재)

구분		우리측		북측	
		구간	추진현황	구간	추진현황
경의선	철도	12.0km	공사 완료('02.12.31)	15.3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5.1km	공사 완료('03.10.31)	7.0km	공사 완료
동해선	철도	9.0km	공사 진행중	18.5km	궤도부설 완료
	도로	4.2km	공사 완료('04.11.30)	20.0km	공사 완료

자료: 통일부, 『2005 통일백서』, p. 105.

남북은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평양, 2007.4.18~22)에서 열차시험운행과 경공업·지하자원 개발 협력을 일괄 타결하였다. 그리고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열차시험운행에 따른 군사적 보장조치에 합의하였다. 2007년 5월 17일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 실시하고,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총리회담 합의를 통해 12월 11일부터 경의선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간에 남북 화물열차가 정기적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북 화물열차는 북한의 2008년 '12.1 조치'(육로통행 제한 조치)에 따라 2008년 11월 28일 이후 운행이 중단되고 있다. 남북 화물열차는 2007년 12월 11일 운행이 시작된 후 2008년 11월 28일 중단되기까지 총 222회(왕복 444회) 운행하였다. 이 기간 화물운송량은 총 17회 31량 55TEU(반출 컨테이너는 24량 235톤, 반입 컨테이너는 7량 75톤)이며, 주로 개성공단 관련 반출입 물자를 수송하였다.

### 3. 중국의 대북투자자와 남북 경제협력사업 비교

중국의 대북투자에서 나타난 특징으로는 첫째, 중국이 대북 투자에 있어 다른 분야에 비해 지하 광산자원 개발에 가장 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무산철광에 투자해 철광석을 생산하고 있고, 다른 광물자원(금광, 동광, 몰리브덴광, 탄광 등) 개발을 위한 투자를 추진 중이다.<sup>62</sup> 2008년 말 중국 ‘이메이집단’은 안주탄전을 대규모로 개발하기로 북한과 합의하였다.<sup>63</sup>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열기는 북한의 거대한 광산자원과 저렴한 노동력이 중국기업의 대북 투자를 유인하고 있고, 동시에 경제 급성장에 따른 자원 수요에 대처하고자 중국이 북한의 광물자원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북투자 분야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제조업, SOC개발, 유통·운수업, 수산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컴퓨터, 슬레이트, 자전거, 전기기구 등을 북한과의 협작을 통해 생산 중이다. 유통·운수업 분야에서는 평양 제1백화점 운영이 추진된 바 있고, 보통강공동교류시장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북한 지역 인프라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동북진흥계획이 추진되면서 최근 ‘훈춘-라진 로항구 일체화’ 계획과 ‘창지투 개방선도구’ 계획이 실행단계로 접어들었다. 양국은 접경지역 연계개발을 위한 협력에 적극 나서

<sup>62</sup> 중국의 대북 분야별 투자 현황에 대해서는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pp. 52~65 참조.

<sup>63</sup> 2008년 12월 12일 허남이마메이예(河南義馬煤業)집단유한공사(‘이메이집단’)는 북한과 안주탄전 합작개발 의향서에 서명하였다. 이메이집단은 안주 지역에 1,000만 톤급의 탄광과 120만 톤급의 석탄화공 프로젝트 건설에 투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I
II
III
IV
V
VI

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 라선지역 개발과 관련 나진항 1호 부두 확장과 라진-원정간 도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고, 압록강 유역에서는 립토, 문악발전소 건설이 착공되었다.

셋째, 중국의 대북투자는 정부와 당 차원의 전략적 판단과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양국 간 경제교류협력은 “정부가 인도하고, 기업이 참여하며,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운용한다(政府引導, 企業參與, 市長運作)”는 방침을 천명하였다.<sup>64</sup> 이것은 북·중 경제협력이 정부차원에서 우선 협의·결정된 후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참여해 실행한다는 것이다.<sup>65</sup>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는 민간 기업이 중심이 되어 대북투자에 나서고 있지만, 지하자원 및 SOC 개발과 대규모 사업은 중앙정부와 성(省)정부의 지원 속에서 대북투자가 이루어진다.

넷째, 대북투자는 현재까지 주로 보상무역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보상무역·합작투자의 형태는 투자한 설비만큼 생산제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낮고, 투입산출주기가 짧으며 상호 해산도 간편하다. 합작투자의 사례로는 연변 천지공업무역유한회사와 북한 무산광산간 합작, 산둥성 초금집단과 양강도 혜산 청년동광간 합작 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수산협력의 경우 어획고의 일부를 현물로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것과 수력발전소 건설에서 중국의 투자 금액을 전력으로 북한이 지불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대북투자가 진행된 것은

---

<sup>64</sup> 이러한 방침은 2010년 8월 말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정부인도가 정부주도로, 기업참여는 기업위주로 바뀌면서 더욱 강화되었다.

<sup>65</sup>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p. 20.

북한 측 투자환경의 제약 때문에 수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북투자가 단기간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북·중 양국의 정책변화에 기인하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저우추취(走出去: 투자진출정책) 정책을 통해 대북투자를 장려하고 있고, 북한도 경제개혁 조치 이후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지금까지 중국의 대북투자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실제 투자에 있어서도 협상 중단 사례들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 투자 기업들은 생산초기단계에 있다. 그러나 최근 북·중 접경지역 개발에 대한 양국의 이해가 맞닿아 중국은 대북 인프라 투자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의 대북투자라 할 수 있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남북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추진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은 현대그룹에 의해 성사되었다. 이 사업들은 북측과의 합의에 따라 제한된 지역에서 특구 형태로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기반시설 및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 등의 건설을 지원하였다.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과 금강산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민간부문 경제협력사업이라 불리는 북한 내 여타 지역에서의 협력사업은 불과 10여개 정도만이 운영 중에 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된 현재 개성공단사업이 유일한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개성공단이 남북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대북투자와 견줄 수 있는 남한의 경제협력사업은 제조업 위주로 개성공단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우리의 대북 투자 실적 및 생산현황은 현재까지 개성공단을

I
II
III
IV
V
VI

중심으로 중국을 능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자원 및 인프라 개발, 유통·서비스·관광 등의 분야에서는 중국에 비해 투자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는 가운데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면서 중국은 북·중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의 대북투자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개성공단만이 가동을 지속할 뿐 새로운 남북경제협력사업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에 따른 북한의 대중 의존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 V. 중국과 한국의 대북지원

중국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이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과 · 중



## 1. 중국의 대북지원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북·중 경제관계는 대체로 정치·군사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이 관례였다. 이런 전략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조건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의 대북지원은 다소간 파고를 겪기는 했지만 지속되어 왔으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항상 특혜를 부여해 왔다.

중국의 해관통계에 포함된 공식적인 대북 무상지원액(대북 무상원조는 대북 수출에 포함)은 상당한 기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는 2001년 6,910만 달러를 정점으로 이후 3년(2002~2004)간은 1,000만 달러를 상회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상원조의 비중은 2001년 12.1%에서 2003년과 2004년에는 각각 1.7%, 1.8%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2005년 대북 무상원조는 3,810만 달러로 늘어나 대북 수출에서의 비중은 3.5%로 다소 높아졌다. 2006년에는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의 무상원조를 유지했으나 대북 수출 증가로 인해 그 비중은 3.0%로 다소 낮아졌다.

● 표 V-1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원조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대북수출(A)	328.7	450.8	571.6	467.3	627.6	799.5	1,081.2	1231.9
무상원조(B)	48.4	27.6	69.1	16.0	10.9	14.6	38.1	37.4
비중(B/A)	14.7	6.1	12.1	3.4	1.7	1.8	3.5	3.0

자료: 중국해관총서 통계사.

세계식량계획(WFP)의 “국제 식량원조 정보시스템(INTERFAIS)”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한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지원국이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은 북한 정부에 직접 곡물환산치 312만 톤에 해당하는 식량을 지원하였다. 이 수치는 1995년~2008년 기간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1,167만 톤의 26.7%에 해당한다. 이 기간 한국도 북한에 324만 톤의 식량을 제공하였다. 2008년 중국의 직접적인 대북 식량지원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sup>66</sup>

표 V-2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단위: 톤)

연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국제사회 합계
1995	150,000	-	-	378,000	-	544,397
1996	3,401	23,379	100,000	138,574	-	498,907
1997	62,393	194,941	150,000	791	199,720	856,738
1998	54,056	241,521	153,351	67,000	87,570	763,934
1999	12,110	595,374	207,103	-	57,364	981,293
2000	351,087	333,848	291,349	99,999	57,000	1,193,234
2001	198,000	301,185	435,148	500,000	10,221	1,469,832
2002	457,800	187,099	310,696	-	9,000	1,095,054
2003	542,191	23,421	214,424	-	69,185	913,822
2004	406,510	81,395	158,722	71,743	1,853	822,423
2005	492,743	16,800	531,416	48,084	2,655	1,153,507

66.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010년 2월 국회에서 중국은 2009년에 30만 톤의 식량을 유무상으로 북한에 지원했다고 보고하였다. 『연합뉴스』, 2010년 2월 23일.

연도	한국	미국	중국	일본	EU	국제사회 합계
2006	79,500	-	257,991	-	-	353,573
2007	421,040	-	312,231	-	1,614	754,802
2008	8,005	127,226	-	-	-	270,098
계	3,238,837	2,126,189	3,122,431	1,304,191	496,182	11,671,619

주: 곡물환산치 자료.

자료: WFP, *Interfais* 자료, 김영훈,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KREI 북한 농업동향』, 제12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7), pp. 17~19 재인용.

중국의 대북 무상지원 규모는 양국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공식적인 발표 이외에는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은 비공식적(공식적 지원에 포함되어 있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식이란 용어 사용)으로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중반 북·중 정부는 양국 관계 악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관계 복원에 노력하였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북한과 중국이 과거의 우호관계를 회복하고, 이후 양국의 최고지도자를 포함한 고위 인사들의 상호 방문과 교류를 통해 북·중 우호협력관계가 한층 긴밀해졌다. 따라서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비공식적 대북지원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94년부터 대북원조를 재개한 바 있고, 1996년 5월 22일 북한 홍성남 총리의 북경 방문 시 리핑(李鵬) 총리와 대북원조를 포함하는 ‘경제기술합작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향후 5년간 중국은 북한에 석유 130만 톤과 석탄 250만 톤을 지원하고, 매년 곡물 50만 톤을 절반은 무상으로, 절반은 우호가격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sup>67</sup> 1999년 6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대

I
II
III
IV
V
VI

규모 외교사절단의 방중 시에 중국은 식량 15만 톤과 코카스 40만 톤(총 5,000만 달러 상당)을 무상 지원하기로 약속하였다.

2000년대에도 양국은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약속이 이루어졌다. 2001년 장쩌민 국가 주석이 방북하였을 때 식량 20만 톤과 디젤유 3만 톤을 무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sup>68</sup> 2002년에는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4.15)을 맞아 북한에 5,000만 위안(약 600만 달러)에 상당하는 물자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04년에는 북한의 2차 6자회담 참석에 대하여 5,000만 달러 상당의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약속하였고, 남포시 대안친선유리공장 신축비로 2,400만 달러를 무상 지원하였다. 중국 측의 무상원조를 통해 건설된 대안친선유리공장은 2005년 10월 9일 준공된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69</sup>

핵문제로 인해 양국 관계가 불편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도 중국의 대북지원은 약속과 합의가 있었다. 2005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약 20억 달러의 장기 원조를 표명한 바 있다. 같은 달 방북한 중국 국무원 우이 부총리는 광산개발, 제철공업, 항구개발 등 3대 중공업 분야에서 기존의 북한 중공업 단지와 함경북도 일원에 개발 원

---

<sup>67</sup>- Marcus Noland,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p. 100.

<sup>68</sup>- 톤당 가격을 옥수수 100달러, 쌀 270달러, 디젤유 300달러로 적용할 경우 옥수수와 디젤유 제공시에는 2,900만 달러, 쌀과 디젤유 제공시에는 5,400만 달러 규모이다.

<sup>69</sup>- 2006년 북한의 대중 수출에서 유리제품(HS 70)의 대폭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유리제품의 경우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량 전부가 판유리(HS 7005)인 것으로 볼 때 대안친선유리공장이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KOTRA, 『2006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33.

조를 해주기로 합의하였다. 2007년 9월에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하여 북한에 5만 톤의 중유를 제공하였다. 2009년 10월 원자바오 총리는 “조·중 우호 60주년”을 맞아 북한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과 ‘5개년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고 20억 달러 상당의 대북 경제원조와 투자에 합의하고 신암록강대교 무상건설, 나진항 부두개발 및 도로 건설에 착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양국 정상회담 및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 시 중국이 북한에 약속한 지원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동시에 상당 부분은 누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지원에서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북한의 대중 무역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면서 중국의 대북 원조가 2004년 이후 4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있다.<sup>70</sup>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이 북·중 무역을 통해 상당 규모의 실질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sup>70</sup>- KOTRA, “중국내부에서 나오는 대북 관계 재고에 대한 목소리,” 『북한경제속보』 (2009.6.4).

I
II
III
IV
V
VI

## 2. 한국의 대북지원

1995년 이후 지속된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식량난에 처한 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의 대북지원은 1995년을 시작으로 계속 진행 중이며 2006과 2007년에 최대 수준인 3억 달러 정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08년부터 대북지원이 감소하기 시작해 1억 456만 달러로 축소되었고, 2009년에도 또 다시 줄어들어 6,562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2008년과 2009년에 대북지원이 크게 감소한 것은 정부차원의 대북 비료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표 V-3 대북지원 현황

연도	정부차원		민간차원		합 계	
	만 달러	억 원	만 달러	억 원	만 달러	억 원
1995	23,200	1,854	25	2	23,225	1,856
1996	305	24	155	12	460	36
1997	2,667	240	2,056	182	4,723	422
1998	1,100	154	2,085	275	3,158	429
1999	2,825	339	1,863	223	4,688	562
2000	8,139	978	3,238	387	11,377	1,365
2001	7,522	975	6,017	782	13,539	1,757
2002	8,915	1,140	4,577	576	13,492	1,716
2003	9,377	1,097	6,386	766	15,763	1,863
2004	11,541	1,313	13,250	1,558	24,791	2,871
2005	3,588	1,360	7,666	779	21,254	2,139
2006	22,740	2,273	7,088	709	29,828	2,982
2007	20,893	1,983	9,568	909	30,461	2,892

연도	정부차원		민간차원		합 계	
	만 달러	억 원	만 달러	억 원	만 달러	억 원
2008	3,996	438	6,460	725	10,456	1,163
2009	3,704	461	2,858	376	6,562	837
2010.8	85	22	1,090	124	1,275	146
합 계	140,697	14,651	74,382	8,385	215,079	23,036

자료: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동향』 (2010.8), pp. 141~142.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식량 차관 지원 제외)는 총 5,829억 원(정부차원 3,586억 원, 민간차원 2,243억 원)이다.<sup>71</sup>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비료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대북지원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지자체를 비롯해 기업들이 대북지원단체들의 주요 후원자로 나서게 되었고, 각 지방의 특산물과 잉여농산물의 지원이 이뤄지면서 대북지원 규모가 급증하였다.

이 시기 대북지원은 정부차원의 식량과 비료, 민간차원의 밀가루, 옥수수 설탕 등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에 한정되어 있었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사업은 농업 및 보건의료분야 사업이 주축을 이루어 농기계, 각종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등이 추진되었다. 그렇지만 2001년부터 북한 농업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목적으로 한 남북농업협력과 개발 지원을 위한 노력들이 민간단체들 사이에서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sup>71</sup>- 2000년과 2002년의 대북 식량차관 지원액 2,567억 원을 포함할 경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총 8,557억 원(정부차원 6,153억 원)으로 늘어난다.



노무현 정부(2003년~2007년)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더욱 확대되었다. “우리의 부담능력과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효과” 등을 고려하여 북한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북지원의 확대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발전을 이룩한다는 정부의 원칙이 실제로 대북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 결과 참여정부 5년 동안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총 1조 2,747억 원(정부차원은 민간 기금지원액을 포함 8,026억 원, 민간차원은 4,721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sup>72</sup> 2004년 북한 용천역에서 대규모 폭발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자 정부는 물론 범국민 차원의 지원이 활발히 전개된 바 있다.

참여정부 시기 민간단체들은 북한 농업 생산성 향상사업, 병원 현대화 및 영유아 지원사업 등을 개발지원 형태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즉, 북한의 자립 능력 제고를 위한 대북 개발지원이 부분적으로 추진되면서 대북지원사업의 형태가 점진적으로 다변화되었다. 그렇지만 민간단체가 추진한 이런 개발지원사업도 대부분 장비 및 물자 지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 북한에게 대규모 비료지원과 식량 차관지원이 제공되었다. 정부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5.5만 톤(7,995억 원)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7년까지(2001년과 2006년은 차관지원 없음) 총 260만 톤(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의 식량을 북한에 차관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식량 차관지원은 비록 유상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제로는 무상지원이다.

---

72. 참여정부 5년 동안 정부차원의 대북 식량차관 지원액 6,305억 원을 포함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규모는 총 1조 9,052억 원이다.

●표 V-4 대북 식량차관 제공 현황

연도	지원실적	남북협력기금	지원기간
2000	외국산쌀 30만 톤, 중국산옥수수 20만 톤	1,057억 원	2000.10~2001.3
2002	국내산쌀 40만 톤	1,510억 원	2002.9~2003.1
2003	국내산쌀 40만 톤	1,510억 원	2003.7~12
2004	국내산쌀 10만 톤, 외국산쌀 30만 톤	1,359억 원	2004.7~2005.2
2005	국내산쌀 40만 톤, 외국산쌀 10만 톤	1,787억 원	2005.7~2006.2
2007	국내산쌀 15만 톤, 외국산쌀 25만 톤	1,649억 원	2007.6~12
계	쌀 240만 톤, 옥수수 20만 톤	8,872억 원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 220.

●표 V-5 대북 비료지원 현황

(단위: 만 톤, 억 원)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규모	15.5	30	20	30	30	30	35	35	30	255.5
금액	462	944	638	832	811	940	1,207	1,200	961	7,995

자료: 통일부, 『통일백서 2008』, p. 218.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전략을 추구하면서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실행한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문제를 인도적 문제로 간주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핵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고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대규모 비료지원은 중단되었고, 민간차원의 지원마저 위축되는 등 현 정부

- I
- II
- III
- IV
- V
- VI

하에서 대북지원은 크게 감소하였다.

대북지원은 민간차원보다는 정부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 8월 말까지 대북지원 누계에 따르면 전체 대북지원(식량 차관 지원 제외)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2/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시기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비중은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대규모 식량 차관지원을 포함할 경우 정부차원의 대북지원 비중은 더욱 높아지게 된다.

현재까지 한국의 대북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크게 일반구호, 농업복구 및 보건의료 3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8월 말 누계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일반구호에 45%, 농업복구에 41%, 보건의료분야에 14% 지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농업복구에 대한 지원이 일반구호와 거의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비료를 대규모로 지원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주로 일반구호와 농업복구에 치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 3. 대북지원 비교

중국의 대북지원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지원은 핵문제 등 국제정치적 현안과 적절히 연계되어 북한의 변화 및 국제사회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정치·외교·경제적 이해관계를 우선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는 상반되는 방향에서 지원 규모와 시기가 결정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은 북·중 양국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최고위층의 상호 방문 등과 같은 양국의 밀착 정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대북지원은 통계에 나타난 것 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지속적인 대규모 대중 무역 적자를 감안할 때 이 중 상당부분은 중국이 상환을 면제함으로써 실질적인 대북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중국 지방정부(성), 기업, 개인차원의 대북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의 통계에서는 누락되고 있다.

북·중 정상회담 및 고위 인사의 상호 방문 시 중국은 대북지원을 합의 또는 약속하였다. 이런 대북지원의 상당 부분은 공식적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상당 부분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중국의 대북지원에서는 공식적 지원보다는 비공식적인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중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북한은 중국에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서 대북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는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지원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중국의 비공식적인 대북지원을 감안하더라도 1995년 이래 지원규모 면에서 한국이 중국에 비해 더 많은 지원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중국의 대북지원규모는 한국의 규모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라 대북지원에 따른 영향력 면에서는 한국이 중국을 앞서고 있다.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는 인도적 사안의 대북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정부에서 북한에 제공한 대규모 지원은 인도적 지원

I
II
III
IV
V
VI

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08년 이후 북한에 대한 쌀 차관 지원과 비료지원이 중단된 상태로서 우리의 대북지원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 VI.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 1. 경제난 완화 및 경제성장

북한경제는 1990년대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해 후퇴하였고, 2000년대 들어와서도 저성장과 마이너스 성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 결과 전반적인 산업생산이 부진하고 이에 따른 물자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1980년대 후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외적으로는 핵문제 등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에 처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북·중 경제관계 확대는 북한의 경제난 완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은 생산설비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자재는 물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생필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다. 북·중무역에서 중국은 북한의 일방적인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용인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다.

북·중무역의 특징 중 하나인 변경무역을 통해 각종 생필품과 식량이 중국으로부터 북한에 유입된다. 이렇게 유입된 중국산 제품들은 북한 내 유통경로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된다. 물자가 부족한 북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생필품 조달이 여의치 않다면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북·중 간 공식, 비공식 교역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국의 대북한 교역 및 지원과 같은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당면한 북한 주민들의 생활난 완화와 북한경제의 위기상황 극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지난 1999년 이래 북한경제는 저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대부분 학자들은 북한경제가 성장을 하게 된 주된 동인으로 외부지원과 대외무역의 증가를 들고 있다. 무역을 통해 비효율적 산업에 투입되

I
II
III
IV
V
VI

었던 생산요소가 보다 효율적인 산업으로 재배치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sup>73</sup>

북·중 경제관계의 확대는 북한의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무역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무역증가율로 회귀함으로써 얻은 양자 사이의 추세선의 기울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up>74</sup> 이것은 북한의 무역 증가율이 높았던 해일수록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이 사실은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북·중무역의 증가율과 북한의 경제성장률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북·중무역의 증가율은 북한의 대외무역 증가율보다 많은 연도에서 매우 높았고, 일부 연도에서 낮았지만 그 정도는 소폭이었다.

표 VI-1 북한의 경제성장률과 무역증가율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경제성장률	1.3	3.7	1.2	1.8	2.2	3.8	-1.1	-2.3	3.7	-0.9
대외무역	32.1	15.6	5.5	5.6	17.9	16.5	8.4	6.9	14.9	-7.2
북·중무역	31.8	51.1	0.1	38.6	35.4	14.1	7.5	16.1	41.2	-3.8

자료: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연도.

<sup>73</sup>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 190.

<sup>74</sup> KDI, 『KDI북한경제리뷰』, 2010년 6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65~66.

사실 북한경제가 저성장하는 동안 북한 내부에서 경제성장을 이끌 만한 산업생산에서의 증가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농업부문에서 곡물생산이 다소 증가하였고, 서비스 및 유통분야에서의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 것이 눈에 띄는 정도의 변화이다. 따라서 최근 북한경제의 저성장에는 대외무역의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의 증가를 이끌어 온 중국이 북한의 저성장 기조에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기계, 설비, 원자재, 연료 등을 다량 수입하고 있다. 대중 주요 수입품목인 기계류, 전기기기 및 부속품(HS 84, 85)의 수입액 증가 및 수입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 임가공용 섬유 원자재와 의류부속품의 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북한의 산업생산 및 고용증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에 처한 북한 산업은 중국으로부터의 물자 수입에 차질이 생길 경우 당장 산업가동률 저하로 나타나게 된다. 북·중무역이 증대되면 될수록 북한의 산업생산과 고용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sup>75</sup>

중국은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및 중국 투자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통해 북한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투자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의 매체들은 북한시장이 비록 여러 가지 투자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으나, 풍부한 지하자원과 저임의 노동력을 가진 미개척 시장으로 투자 매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sup>76</sup> 최근 기계류의 대

75.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p. 193.

76. “중, 북한시장 공략 장기계획,” 『연합뉴스』, 2004년 5월 31일; “중 기업인 ‘북한은 잠재력 큰 시장,’” 『요녕조선문보』, 2004년 11월 2일.

I
II
III
IV
V
VI

중 수입 증가는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에 의한 생산설비의 도입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투자 확대는 북한산업의 생산 잠재력 확대와 기술이전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한국도 북한의 경제난 완화에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과 한국이 북한경제를 지탱해 온 두 축이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곡물환산치 기준으로 각각 300만 톤이 넘는 식량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한국은 북한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총 255.5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1999년~2006년 한국의 대북지원액은 13.5억 달러,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무상지원액은 2.6억 달러이다. 수치만 단순 비교한다면 한국의 대북지원이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지원보다 5배 정도 크다. 중국은 공식적 이외에 비공식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원조를 북한에 제공하였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의 공식, 비공식 대북지원의 합이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를 상회하였다 하기에는 한국의 대북지원 규모가 중국의 공식적 지원에 비해 월등히 높다. 한국은 중국에 비해 북한에 더 많은 지원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표 VI-2 북한의 대중·대남 무역의존도 비교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무역의존도	20.4	27.6	25.4	32.8	39.0	38.9	39.1	41.7	49.4	52.6
대남 무역의존도	17.8	15.1	22.1	23.2	19.6	26.0	31.1	37.9	32.3	33.0

주: 남북교역 포함.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비록 한국의 대북지원이 중국에 비해 크다 할지라도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한국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북한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중국이 훨씬 클 것이다. 북·중무역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다면 남북교역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중국에 비해 협소할 것이다.

## 2. 고용효과

북한의 많은 공장과 기업소는 개점휴업 상태이다. 북한의 공장가동률이 20~30%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투자과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공장가동률을 높여 실질적으로 북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중 경협과 남북경협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고용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추산해보고자 한다.

남북경협을 통해 직접 창출되는 고용효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 나타난다. 가장 분명한 고용효과는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이다. 그 다음은 남한의 원자재를 받아 완제품으로 만든 뒤 다시 남한으로 내려 보내는 북한 위탁가공공장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이다. 그 밖에도 개성공단 이외 북한 지역에 진출한 대북 투자기업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 북무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대북 진출 기업은 실제로 가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금강산관광사업도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내 고용 창출효과는 개성공단 및 위탁가공교

I
II
III
IV
V
VI

역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라 할 수 있다. 2009년의 경우 개성공단사업의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는 4만여 명(2009년 말 현재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수는 42,561명)으로 분명하다. 그러나 위탁가공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의 정확한 규모는 정부 발표 통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 고용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남북 위탁가공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수를 추정한다.

한국은 2009년 남북 위탁가공교역의 임가공료로 3,175만 달러를 북한에 제공하였다. 이 금액은 개성공단 근로자 4만여 명이 받아간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남북한 위탁가공업에 종사하는 북측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개성공단의 1/2에서 1/3 정도로 추정하면 고용효과는 최소 6만, 최대 12만 명에 이를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sup>77</sup>

중국도 대북투자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진출기업은 제조업을 비롯해 자원개발 분야,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북한 노동자를 흡수하고 있다. 2003년~2008년 동안 중국의 공식적인 대북 직접투자액은 9,254만 달러이다. 이 기간 한국은 개성공단에 총 93개 기업이 3,338억 원을 투자해 북한 노동자 38,931명을 고용하였다.<sup>78</sup> 개성공단 1인당 투자액을 산출하여 중국의 대북투자 총액에 적용할 경우 중국의 대북투자 고용효과는 약 1만 명 정도이다.

한편 중국은 의류제품을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해 들여오기 위해 북한 노동자를 활용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의류·부속품(메리야스·편물 제외, HS 62)은 9,326만 달러이다. 이들

---

77. 『조선일보』, 2010년 5월 25일.

78. 통일부, 『2009 통일백서』, p. 87.

모두가 북한에서 임가공 생산되어 수출되었다고 가정한다면 2009년 남한의 위탁가공교역 반입액 2억 5,400만 달러의 약 36.7% 수준이다. 앞서 추정한 남북 위탁가공교역의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 산출 방식을 적용하면 북·중 위탁가공업에 종사하는 북한 노동자는 약 2~4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표 VI-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따른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

중 국			한 국		
대북투자	위탁가공	계	개성공단	위탁가공	계
1만	2~4만	3~5만	4만	6~12만	10~16만

주: 본문 참조.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따르는 북한 노동자 고용효과는 한국이 10~16만 정도로 중국의 3~5만에 비해 월등히 앞서고 있다. 한국은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사업을 북한에서 추진 중에 있고, 위탁가공교역도 중국에 비해 훨씬 큰 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중관계의 밀착 속에서 중국의 대북투자 및 위탁가공교역의 확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런 추세대로라면 머지않아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 3. 자원 및 경제개발

중국은 자국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하자원 개발을 위해 대북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을 비롯해 북한 여러 지역의 철광산을 개발 중이고, 에너지 자원인 무연탄 개발에도

- I
- II
- III
- IV
- V
- VI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북한의 금, 동, 몰리브덴, 연·아연 등과 같은 여타 지하자원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는 광산 개발 및 석탄화학 분야의 협력, 제철소 설립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투자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년 한 해에만 7,210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보도되었다.<sup>79</sup>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광물자원 및 광물성 생산품의 수출액과 수출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북 지하자원 개발 투자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것은 개성공단 이외 지역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대북 자원개발 분야에서 단지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sup>80</sup> 남북한이 새로운 경제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사업은 북한이 경공업 원자재 차관 제공의 대가를 아연괴로 일부 상환했을 뿐 이 사업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단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과 한국은 대북 자원개발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자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대북 자원 개발을 서두르면서 관련 생산설비들을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광물자원 생산능력의 확충 및 지하자원의 대중

---

<sup>79</sup> 중국은 대북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2004년~2007년 총 2억 1,740만 달러 (2004년 3,000만 달러, 2005년 5,000만 달러, 2006년 6,530만 달러, 2007년 7,21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재인용, “동방의 엘도라도,” 『KBS 시사기획 ‘쌈’』, 2008년 10월 21일 방영.

<sup>80</sup> 광업진흥공사, 민간기업 등이 추진 중인 대북 자원개발사업은 투자 5건, 계획 4건, 협의 5건 등 총 14건이다. 그러나 현재 광업진흥공사의 정춘흑연 광산개발, 태림산업의 룡강석산(화강석) 개발, 서평에너지의 북한 무연탄 개발 등 3건만이 실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수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대중 자원 유출이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중국의 대북 자원개발 진출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북·중 경제협력의 확대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현상은 양국 간 물리적 연계성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적극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단둥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신압록강대교는 착공이 임박했고, 랴오닝성의 ‘5점 1선 발전전략(랴오닝성 다롄, 단둥 등 발해만 연안의 5대 도시의 공업지구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단둥-신의주 연계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의 서부지역에서 단둥-신의주 연계개발이 구체화되고 있다면 동부지역에서는 그동안 지연되었던 북·중 접경지역의 연계개발이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국의 두만강지역 개발과 관련된 5대 프로젝트 중에는 훈춘-라선 ‘도로·항만·구역 일체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이 사업의 추진에 필수적인 라진항에 대한 10년간의 사용권을 획득하였고, 북한은 라선시를 특별시로 승격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지역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과 중국은 양국 접경지역의 상호 연계성을 제고시키는 경제협력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가경제개발을 위한 외자유치 및 대외경제협력의 확대를 제기하면서 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중국 자본을 우선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외자유치와 경제발전을 주도할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하고 대풍그룹을 조직하였다. 북한의 국가개발계획은 라선, 신의주 등 중국 접경지역을 우선 개발한 다음 평양, 남포 등 내륙 지역의 도시들을 추가로 개발하고자 한다.

중국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북3성 개발은 인접국가인 북한에게는 지역경제협력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과 동북3성간 운송·물류 인프라의 연결, 자원의 공동개발 및 활용과 같은 각종 프로젝트

I
II
III
IV
V
VI

들이 본격화 될 경우 양국 접경지역 북한 도시들의 경제활동 및 산업 생산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대북투자는 아직은 소규모에 머물고 있지만 향후 인프라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중국의 대북투자 확대는 동북3성의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올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다. 8월 말 김정일 위원장이 동북3성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양국 간 접경지역 개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중 접경지역의 연계 개발을 계기로 북·중 경제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우선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 인프라가 대폭 확충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북부지역 개발의 성과는 점차 내륙으로 확산되어 북한의 경제개발을 촉진시켜나갈 것이다.

북·중 양국의 접경지역 연계개발이 시작되면서 중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다. 동북3성 개발과 맞물린 대북 인프라 구축형 투자의 확산에 따라 중국은 북한과의 육로 수송망 연결을 통해 북한 시장 선점 및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기대할 것이다.

한국의 대북 인프라 투자는 남북 철도·도로연결사업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었다. 경의선 도로는 개성공단사업을 위한 인원과 물자의 이동에 활용되고 있으나 동해선 도로는 금강산관광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다. 경의선 철도의 경우에는 남북 화물열차가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운행되었으나 북한의 2008년 '12.1 조치'(육로통행 제한조치)에 따라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다.

중국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연계된 대북 자원 및 인프라 투자에 나서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북 자원 개발 투자 실적이 미미하고 대북 인프라 투자도 특정 경제협력사업에 국한하여 제한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었다. 따라서 북·중 경제관계의 대북 자원 및 경제개발 효과는 남북경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런 차이는 북·중 경제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4. 시장 지배력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남북교역을 제외할 경우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2009년 현재 78.5%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남북교역을 포함하더라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52.6%로 대남 무역의존도 33.0%에 비해 거의 20% 포인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대중 무역의존도보다 더욱 높다. 2009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수입의존도(남북교역 포함)는 61.0%이다. 이것은 북한이 수입하는 상품 5개 중 3개가 중국산이라는 사실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은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해 물류비를 절감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할 수 있다. 2009년 북한의 대남 수입의존도는 24.1%로 중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 표 VI-4 북한의 대중·대남 수입의존도 비교

(단위: %)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수입의존도	26.7	31.0	24.7	30.6	35.1	39.8	42.8	45.7	56.9	61.0
대남 수입의존도	16.2	12.3	19.5	21.2	19.3	26.3	28.8	33.6	24.8	24.1

자료: 통일부, 남북교역통계;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각 년도.

I

II

III

IV

V

VI

이런 북한의 대남 수입의존도를 남북교역의 유형별 형태에 따라 살펴보면 한국의 북한 시장 지배력은 매우 협소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상업적 거래의 경우 거래성교역(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과 경제협력사업을 통해 북한에 상품을 반출하고 있다. 경제협력사업의 경우 반출되는 제품의 거의 전부는 개성공단에 필요한 원자재와 설비로 구성되어 있다. 거래성 교역에 있어서도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되는 원자재는 북한 시장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다만 거래성 교역의 일반교역만이 북한 시장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북한의 2번째로 큰 교역상대국이다. 그러나 북한시장에서 유통되는 한국 상품을 찾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북한은 정치적인 의도로 한국 상품의 북한 시장 내 유통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제품은 남북교역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북한으로의 진출이 거의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교역의 반출(북한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일반교역의 비중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2009년 남북교역의 반출 총액은 7억 790만 달러였으나 일반교역의 반출액은 1,090만 달러에 불과해 전체 반출액의 1.5%에 그쳤다. 다시 말하면 남북교역은 북한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제품을 전혀 취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대남 수입에 해당되는 대북지원을 감안한다면 한국의 대북 시장 지배력은 더욱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남북교역은 북한 시장과는 동떨어진 형태로 추진되어 왔다.

북·중 경제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은 심화되어 왔다. 이미 북한시장에는 중국산 소비재가 넘쳐나고 있다. 북한의 대중 의존이 심화될수록 북한의 내수시장은 중국제품의 소비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중 의존 심화는 북한의 자체적인 자본축

적을 통한 소비재 생산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 → 자본축적의 선순환 발전구조 형성을 저해하고, 대신 소비재의 수입대체 → 국내 생산위축 → 자본축적 실패 → 재투자 중단 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초래할 수 있다.<sup>81</sup>

북한은 경제에 필요한 원자재, 설비와 부품, 소비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구조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한층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공산품의 중국산 비중이 70% 정도인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sup>82</sup> 조사에 따르면 중국산 물품들은 북한 시장거래에서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북한의 시장경제 확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다.<sup>83</sup>

북한의 대중 주요 수입품목인 에너지, 철강, 화학제품, 기계류 등은 북한 산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들 품목 대부분은 북·중 사이의 유리한 관세, 저렴한 물류비 등으로 인해 다른 국가로 옮겨갈 가능성이 낮다. 이 중 에너지, 화학제품, 기계류 등은 수입국 다변화를 통해 수입의 일부를 다른 국가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단가 상승 등이 예상되어 당분간 북한의 수입국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81. 우상민, 『북·중 경제 관계 현황과 전망: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중심으로』 (서울: KOTRA, 2005.12), p. 42.

82.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향 조사” (한국은행, 2007).

8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가 탈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와 설비의 중국산 비중은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1%를 차지하였다.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p. 142;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북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원자재·설비 중 중국산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문수,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제12호 (북한경제포럼, 2006), p. 97

I
II
III
IV
V
VI

이와 같이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중 많은 부분은 다른 시장으로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다. 북한이 일본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이 한국 등 다른 나라 시장으로의 대체가 용이한 것과는 대비된다. 내수 위주의 산업구조인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에는 내수용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 증가가 따르게 된다. 북한의 경우 수입 다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부터의 수입 증가는 대중 수입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 속에서 당분간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특히 대중 수입 의존도의 완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북한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북한경제는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중국경제의 부침에 따라 북한경제의 명암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북·중 간에 긴박한 경제외적 상황이 발생해 중국으로부터 원유 등 전략물자와 산업생산에 긴요한 원자재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북한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심화는 북한을 중국 상품의 소비시장으로 고착화시키게 된다.

## 5. 경화(硬貨) 수입

2000년대 남북경협은 북한의 대외거래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이래 한국은 북한의 최대 수출시장이고, 북한의 수입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 무상지원을 북한에 제공해 왔다. 더구나 남북교역은 북한에 경화(硬貨)를 공급하는 주요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다.

북한은 중국과의 대외무역에서 매년 수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중 수입은 빠르게 증가해 왔다. 북한이 3년(식량, 에너지 및 외화부족)에 처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북한과 같이 경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에서 대규모 수지 적자를 수반하는 해외 수입의 확대를 계속할 수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북한은 남북교역의 통계상으로는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남북경협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현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 거래성 교역(실질교역: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서의 흑자와 개성공단사업, 금강산관광사업 등을 통해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경화를 획득하고 있다.

2000년대 북·중무역이 확대되면서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이 기간 북한이 남북경협을 통해 벌어들인 경화 수입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7년의 경우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원유 수입을 포함하면 8.1억 달러,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5.3억 달러였다. 이 해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5.3억 달러(거래성 교역 흑자 5억 달러, 금강산 입장료 수입 2,000만 달러, 개성공단 임금 1,400만 달러)의 경화 수입을 올렸다.

<표 VI-5>는 2000년대 북한의 대외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획득한 경화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시사하고 있다. 북·중무역은 2000년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2009년에 감소하였다. 동시에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2008년, 2009년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경화 수입이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sup>84</sup>

I
II
III
IV
V
VI

표 VI-5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와 남북교역에서의 경화수입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대중 적자	원유수입 포함	414	404	197	232	214	582	764	811	1,278	1,095
	원유수입 제외		295	121	111	75	384	517	529	864	856
남북 교역 경화 수입	거래교역 흑자	61	111	197	169	168	221	326	501	440	333
	관광관련 수입	-	37	22	13	15	14	12	20	20	0
	개성공단 임금	-	-	-	-	-	3	7	14	30	40
	계	61	148	218	182	183	238	345	534	490	373

주: 1) 북한의 대중무역 적자는 전략물자인 원유의 수입이 지원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원유수입을 제외한 경우를 산정.

2) 남북교역에서 거래성 교역은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의 합계.

3) 관광관련 수입은 2007년까지는 금강산 입산료만, 2008년에는 개성관광 입장료 포함.

4) 통일부는 2008년과 2009년 개성공단 임금 규모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북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85달러와 근로자수를 감안하여 그 수치가 2008년에는 3천만 달러, 2009년에는 4천만 달러 정도라고만 밝히고 있음.

자료: KOTRA,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통일부, 이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5; 이석,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정책포럼』, 제21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3.3), p. 5.

북·중 경제관계는 남북경협에 비해 무역의 규모 및 북한 시장에 지배력, 자원 및 경제개발 측면에서 우세하다. 그러나 남북경협(교역)은 북한의 경화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한의 대외무역 확대에 기여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교역을 통한 경

<sup>84</sup>- 2000년대 북한의 무역데이터를 계량 검증한 결과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얻은 실질교역 흑자가 북·중무역의 규모에 인과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석,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pp. 5~6.

화 수입의 감소는 북한 대외무역, 특히 북·중무역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남북교역은 북·중무역과는 다른 차원에서 북한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I

---

II

---

III

---

IV

---

V

---

VI



# 참고문헌

## 1. 단행본

고일동·김상기·이재호. 『남북한 교역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09.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83-1993)』. 서울: 북한연구소, 1994.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최수영.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7.

통일부. 『2009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10.

KOTRA.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서울: KOTRA, 2010.

Noland, Marcus. *Avoiding the Apocalypse: The Future of the Two  
Koreas*.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 2. 논문

김상훈. “최근 북·중 경제협력 현황.”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김영훈.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지원.” 『KREI 북한농업동향』.  
제12권 제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7.

김 철. “북한-중국 경제무역 합작 현황 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08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08.

- 양문수.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문제 소고.” 『북한경제논총』, 제12호. 북한경제포럼, 2006.
- 윤병수·동애영. “북·중 경제협력의 심화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시사점.” 금융연구시리즈 제3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0.3.26.
- 이 석. “남북교역의 변화와 남북관계 경색의 경제적 배경.” 『KDI 정책포럼』, 제21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9.3.3.
- \_\_\_\_\_.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 남북교역, 북·중무역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5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이영훈.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 한국은행, 2007.
- 이희옥. “북·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의 국가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9.
- 정의준. “최근 중국의 대북투자 동향 분석.” 『산은조사월보』, 2007년 3월호. 한국산업은행, 2007.
- 최경수. “북한 단천지역 광산개발사업 추진현황과 전망.” 『신남북 경험과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발전과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북한연구학회 공동세미나, 2007.11.23.
- 한재완. “2010년 상반기 남북교역·북·중교역 동향 비교.” 『Trade Focus』, Vol. 9, No. 49. 한국무역협회, 2010.9.
- KDI. “2010년 8월 북한경제 동향.” 『KDI 북한경제리뷰』, 2010년 8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0.
- KOTRA. “중국내부에서 나오는 대북 관계 재고에 대한 목소리.” 『북한경제속보』, 2009.6.4.
- \_\_\_\_\_. “최근 북-중 경제교류 동향.” 『북한경제속보』, 2010.6.17.

### 3. 기타자료

『교도통신』.

『길림신문』.

『길림일보』.

『데일리NK』.

『문화일보』.

『文匯報』.

『연변일보』.

『연합뉴스』.

『인민일보』.

『長春日報』.

『조선신보』.

『조선일보』.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통신』.

『차이나데일리』.

『投資朝鮮』.

『흑룡강신문』.

『KBS 시사기획 ‘쌈’』.

중국해관총서 통계서.

KOTRA. 『주간뉴스레터』. 2008-14. 2008.6.17.

한국은행. “북한의 GDP 추정결과”.

*UN data*.

무역협회. “KOTIS 무역통계,” <kita.net>.

<<http://www.hyundai-asan.com>>.

<<http://www.unikorea.go.kr>>.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합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 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송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봉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소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n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 의 대북 파급효과 비교분석

[www.kinu.or.kr](http://www.kinu.or.kr)